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7439

2009年 2月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論文

高等學校 漢文敎科書의 漢詩 硏究

A study on the Sino-Korean poetry in the Sino-Korean textbook of High school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金 楨 埰

高等學校 漢文敎科書의 漢詩 硏究

指 導 敎 授　　權　　純　　烈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8年 10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金　　楨　　埰

高等學校 漢文敎科書의 漢詩 硏究

指 導 敎 授　　權　　純　　烈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9年 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金　　楨　　埰

金楨埰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審 査 委 員 長 朝鮮大學校 敎 授 印

審 査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印

審 査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印

2008年 1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目　　次

ABSTRACT ····· i

Ⅰ. 序　論 ····· 1

1. 研究의 目的 및 先行 研究 檢討 ····· 1

2. 研究의 方法 ····· 3

Ⅱ. 收錄 漢詩의 作家別 分析 ····· 5

1. 韓國漢詩 ····· 5

2. 中國漢詩 ····· 5

Ⅲ. 收錄 漢詩의 內容別 分析 ····· 9

1. 自然景物의 詩 ····· 9

2. 情恨과 懷古의 詩 ····· 24

3. 憂國愛民의 詩 ····· 37

4. 遊戱의 詩 ····· 48

Ⅳ. 漢詩 收錄의 改善 方向 ····· 52

Ⅴ. 結　論 ····· 61

참 고 문 헌 ····· 64

부　　록 - <漢詩 收錄 現況> ····· 67

表 目 次

<표 1> 第7次 敎育課程 高等學校 漢文 敎科書 現況 ····· 4
<표 2> 韓國 作家 漢詩作品 收錄 目錄 ····· 6
<표 3> 中國 作家 漢詩作品 收錄 目錄 ····· 8
<표 4> 自然景物의 感想을 內容으로 한 詩 ····· 23
<표 5> 故鄕에 대한 그리움을 內容으로 한 詩 ····· 28
<표 6> 離別의 情恨을 內容으로 한 詩 ····· 34
<표 7> 懷古와 述懷를 內容으로 한 詩 ····· 36
<표 8> 憂國을 內容으로 한 詩 ····· 42
<표 9> 愛民을 內容으로 한 詩 ····· 47
<표 10> 遊戱를 內容으로 한 詩 ····· 51

A study on the Sino-Korean poetry in the Sino-Korean textbook of High school

Kim Jeong-Chae

Adviser : Kwon Soon-yoel Litt.D.

Major : Sino-Korean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nalysed Chinese poetry collected in textbooks of high schools according to the 7th Curriculum. Learning Chinese poetry is a required program in education of classical Chinese according to its nature that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life, wisdom, ideas and emotion of ancestors, cultivation of desirable personality, proper inheritance and creative development of traditional cultures. Therefore, this study analysed the entire Chinese poetry collected in ten different types of current textbooks as follows:

First, Chapter Ⅱ analysed the poetry by Korean and Chinese writers. The textbooks collect 43 poems by Korean writers and 23 by 37 Chinese writers. In respect to periods, Korean poems collected in the textbooks were mainly written in Joseon period and Chinese poems were mainly written in Tang Dynasty. It indicates that writing poetry was very popular in an aesthetic aspect of Chinese poetry in the two periods. However, as only poetry written in Joseon period and Tang Dynasty tended to be recognized as

valuable, careful selection of poetry should be required.

Second, Chapter Ⅲ analysed the contents of the poetry. Here, 59 of 66 poems were analysed except those whose part is collected. As ancestors usually used nature as materials of their poetry, 21 of a total of 59 poems(33%) collected in 10 different types of textbooks used nature as materials. It indicates that Chinese poetry is the most representative literary genre that express natural lyricism and universal emotion. It contributes to cultivation of emotion through unification of man and nature and desirable personality through understanding nature. The poetry on sentiment, big worries, and reflection were categorized into three parts: those on longing for hometown, those on sorrow of separation, and those on reflection and reminiscence. 19 of a total of 59 poems(about 28%) represent human inherent emotion artistically. However, some of them are not appropriate for learners with hopes and dreams to learn in consideration of their ages because they can make learners feel transience of life. It is thought that such poems should not be published in textbooks. 13 poems on patriotism(about19%) were categorized into those on patriotism and those on love of the people. The poetry on amusements is introduced to show that writing poetry is a means of amusement rather than focusing on appreciation of poetry. It is only about 5% of the poetry published in textbooks.

Chapter Ⅳ presented directions to improve collection of Chinese poetry in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curriculum on Chinese Classics using specific poems as an example. The key poems to be examined are presented as follows: <Poetry on Learning Encouragement> by Tao Yenming and Chu Hsi Joohee designed to awaken the importance of learning: <Yeo-so-jang-woo-jung-mun-si> by Euljimunduk, a general of Goreyo

Period and <Bu-byeok-roo> by Leesaek to raise a great morale, <Jeol-myeong-si>, a representative poetry on patriotism by Hwang Hyeon and <Ho-ji-mu-hwa-cho> by Hwang Hyeon and the poetry by Kim, Byeong-yeon, <Chil-bo-si>, a poem on friendship between brothers by Jo Sik, <Yu-ja-eum>, a poem on filial piety by Maenggyo, and <Bingyohaeng> by Tu Fu to awaken the meaning of fidelity. It is not easy to select representative poems to teach from enormous collection of poetry, but we examined poetry that can contribute to desirable personality and healthy senses of valu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suggested t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developing curriculum and organization of textbooks focusing on how to teach students.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및 先行 硏究 檢討

漢詩란 인간의 내면세계를 절제되고 압축된 언어를 통해 漢字로 표현 것이다.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옛 선인들은 한시를 그들의 사상과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한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선인들이 살던 전통사회의 이념과 풍속, 그리고 그들의 정서를 섬세한 언어로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한시는 漢文科의 성격인 "선인들의 삶과 지혜,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우리 생활 전반에 면면히 이어 온 전통문화를 바르게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1]시키는 데 아주 적합한 장르이므로 다른 어떤 영역에 비해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시는 句數의 제한 및 押韻, 平仄, 對偶 등 엄격한 형식과 규칙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까다로운 형식에 음악적 효과를 더하여 시 속에 담고 있는 의미를 울려 퍼지게 한다. 한 편의 詩는 고도로 압축되고 정제된 언어로 이루어지며 함축적인 시어들은 온갖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심상을 드러내는데 한시는 표의문자인 한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한시의 韻律性 때문에 한시교육을 통해서 言語敎育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문과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이지만 한시는 조상들의 삶의 모습과 지혜, 사상, 감정 및 가치관을 한문으로 기록한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현대교육에 있어서 한시교육을 하는 意義가 학습자들의 바른 생활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第7次 高等學校 漢文科 敎育課程에 의거한 10種 敎科書에 수

1)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한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p.13.

록된 한시 작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교과서가 새로 편찬될 때마다 계속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교과서에 수록된 운문·산문·고사성어·속담 등의 내용을 분석하고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그 중에서 漢詩 단원에 국한한 연구로 박완식 외 4인은 7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성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한시를 작가·내용·형식·주제별로 구별하여 선인들의 정서와 감정을 알아보고 교과서 내의 학습요점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하여 지적하였다.[2)]

朴智賢은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실린 한시는 지면의 한계나 타 학습 분야와의 균형 등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특성으로 인해 극히 개략적이고 통속적인 수준의 감상 자료를 수록하는 데 머무르고 작자의 생존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사상 등에 대한 배경설명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과서 수록 한시를 시대별로 분류하고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작자를 선정하여 작자에 관한 설명과 시대적 배경 및 사상을 다루었다.[3)]

金相洪은 漢字는 한 글자라도 誤謬가 생기게 되면 시의 全篇을 본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게 하므로 문학 연구에 있어서 특히 漢詩의 原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서 한시 단원을 중심으로 誤字·誤謬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아 고등학교 현장교육이 정확하고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4)]

車京曖는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의 한시를 형식별·내용별로 분석하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한문 교과 한시 학습목표에 따른 교과서의 학습목표 反影度를 살폈다. 더불어 작품의 오류와 보완점을 지적하여 정확하고 바른 현장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정·보완점을 살폈다.[5)]

---

2) 박완식·김창용·김상곤·김유태·정인덕, 「한문 교과서 내의 한시 분석 연구-제7차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를 중심으로」, 『敎育論叢』 제16권, 전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1.
3) 朴智賢, 「高等學校 漢文 敎科書에 收錄된 漢詩 硏究」,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4) 金相洪, 「第7次 敎育課程에 의한 高等學校 漢文 敎科書의 問題點-漢詩 單元을 중심으로」, 『漢文敎育硏究』 제2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이상의 기존 논문의 대부분은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의 내용과 체제의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의 反影度를 연구하고, 교과서 상의 誤謬를 지적하여 완벽한 교과서를 추구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교과서 수록 한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한시의 표현영역이 넓은 것에 비해서 현행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한시 작품의 내용이 제한적인 점을 지적하고 한시의 효용성과 교육적 효과에 따른 한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교과서의 한시 작품수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교과서에 추가 수록해야 할 작품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研究의 方法 및 範圍

本 研究는 第7次 敎育課程에 의거하여 편찬된 高等學校 10種 漢文 敎科書를 기본 자료로 하여 교과서에 수록된 한시들을 분석하고 앞으로 교과서에 수록해야 할 한시 작품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한다.

Ⅱ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 목적에 접근하기 위해 교과서에 收錄된 漢詩 作品들의 現況을 알아보고 作家別로 분석한다. 한시 작품을 작가별로 분석하는 것은 韓國人의 詩와 中國人의 詩로 비교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時代別 수록 현황도 아울러 파악되므로 역사적 흐름 속에서 意義를 갖는 작품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Ⅲ장에서는 교과서 수록 작품을 內容別로 自然景物에 관한 詩들과, 情恨과 懷古에 관한 詩들, 憂國愛民에 관한 詩, 그리고 遊戱的인 詩들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정한과 회고에 관한 詩들은 離別의 정한, 鄕愁, 述懷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이고, 우국애민의 시는 국가에 대한 충절을 읊은 시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내용의 작품으로 나누었다.

Ⅳ장에서는 앞으로의 漢詩 收錄의 改善 方向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Ⅲ장

5) 車京曖,「第7次 高等學校 漢文敎科書의 漢詩에 關한 研究」, 조선대 교육대학원, 2003.

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품경향이 한쪽으로 치우침을 지적하고, 다양한 범위 내에서 작품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내용으로는 勸學을 다루는 작품, 浩然之氣를 기를 수 있는 작품, 孝와 友愛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과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한시학습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작품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현재는 7차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한 '2007년 개정교육과정'아래 교과서를 새로 편찬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에 의미를 두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한시작품을 학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一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전제할 것은 교과서에 수록된 한시는 총 66首인데 논의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번역만 제시되거나 시의 일부만 제시된 작품은 제외한 59首에 한정 짓기로 한다. 작품수록의 전체적인 현황은 부록으로 제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기본 자료가 되는 제7차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以下의 本 硏究에서는 각 교과서의 호칭을 아래 표의 약칭으로 대신한다.

<표 *1*> 第*7*次 敎育課程 高等學校 漢文 敎科書 現況

연번	출판사	저자	약칭
1	교학사	김경수·김성룡·김봉숙·김평호	교학
2	금성출판사	최상익·이병혁·허남욱·이영우	금성
3	대학서림	신표섭·이병주·이윤찬·강경모 백광호·허시봉·류기영·이태희	대학
4	대한교과서	안재철·원용석·김동규	대한
5	두산동아	이명학·장호성·현상곤·임완혁	두산
6	새한교과서	유성준·김동환·유형구	새한
7	정진출판사	이수철·곽치영	정진
8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김상홍·최창구·이강렬·원창희	중앙
9	지학사	박갑수·이상진·최상근	지학
10	천재교육	이희목·진재교·최돈욱·신영주	천재

Ⅱ. 敎科書 收錄 漢詩의 作家別 分析

1. 韓國漢詩

이 장에서는 現行 高等學校 10種 漢文 敎科書에서 수록된 한시 작품을 作家別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우선 한국작가의 작품은 신라, 고구려, 조선, 구한말의 시대로 분류하였다. 신라시대에는 단 한 명의 작가의 작품만 싣고 있다. 崔致遠의 <秋夜雨中>이 그것인데, '교학'과 '지학'에서 수록하고 있었다. 고려시대는 5名의 작가들의 작품 7首를 총 17회에 걸쳐 수록하고 있다. 그 중 鄭知常의 <送人>은 '대한'과 '두산'을 제외한 총 8種 교과서에서 각각 수록하여 가장 높은 수록 횟수를 차지하는 작품이다. 또한 鄭夢周의 <春>은 4種 교과서에서 수록되어 그 다음을 잇고 있다. 조선시대는 29명 작가의 작품 21首가 45회에 걸쳐 수록되어 전체적으로 조선시대의 작품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대가 멀수록 기록문화의 발달이 미비하여 현존하는 자료가 적은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고려말기 이후부터 한시의 작품 활동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이전 시기의 작품이 적게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학습자로 하여금 우리의 漢詩史에 있어서 조선시대 작품의 가치만을 중요시 하는 인식을 줄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 선별해야 할 것이며 한시사에 대한 간략한 배경설명을 수록해두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韓末의 작품으로 申采浩와 韓龍雲의 작품을 '대학'과 '천재'에서 각각 1首를 수록하고 있다.

2. 中國漢詩

중국의 작품은 宋代의 張兪의 작품 <蠶婦>를 제외하고는 唐代의 작품을 중심으로 수록하고 있다. '지학'에서는 본문 외에 六朝時代 陶淵明의 <四時>와 <雜詩>를 수록

하고 있지만 각각 시의 일부만을 수록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면 중국의 한시작품 총 18首 중에서 17首가 唐代의 작품이다. 한시 작품 활동의 절정기인 동시에 미학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났던 시기의 활동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서 조선의 작품수록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치우친 작품 선별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구체적인 한국과 중국 작가의 한시 작품 수록 현황을 표로 제시한다.

<표 2> 韓國 作家 漢詩作品 收錄 目錄

국가	시대	작가명	작품명	교과서								수록 횟수
韓國	新羅	崔致遠	秋夜雨中	교학				지학				2
	高麗	鄭知常	送人	교학	금성	대학	새한	정진	중앙	지학	천재	8
		李仁老	山居	대학								1
		李奎報	代農夫吟	두산								1
			山夕詠井中月	대한								1
		鄭夢周	春(春興)	교학		금성		정진		중앙		4
			丹心歌	대한								1
		李崇仁	新雪	금성								1
	朝鮮	李芳遠	何如歌	대한								1
		鄭道傳	訪金居士野居	교학				대학				2
		成石璘	送僧之楓岳	두산				천재				2
		權韐	松都懷古	두산								1
		金時習	有客	정진								1
		李珥	花石亭	새한				지학				2
		曺植	天王峯	천재								1
		洪顯周	偶吟	두산								1
		無名氏	別情人	지학								1
		宋時烈	金剛山	새한								1
		李達	佛日菴贈因雲釋	정진								1

			(山寺)					
		劉希慶	月溪途中	대학				1
		林悌	無語別	금성				1
		李慶全	犬吠	대한				1
		姜柏年	金剛道中	두산				1
		金壽恒	雪夜獨坐	금성				1
		申師任堂	踰大關嶺望親庭 (泣別慈母)	금성	중앙	지학		3
		權韠	途中	지학				1
		魚無迹	流民歎	천재				1
		李玉峯	自述(夢魂)	금성	대학			2
			閨情	대한	천재			2
			閨情	대학				1
		李舜臣	陣中吟	중앙	정진			2
		李匡呂	章臺枝	교학				1
		鄭來僑	農家歎	교학				1
		許楚姬	採蓮曲	천재				1
		蔡壽·蔡無逸	祖孫問答	대학	대한	지학	천재	4
		朴竹西	述懷	대한				1
		金炳淵	二十樹下	교학	대학	중앙	정진	4
		作者未詳	十七字詩	대학				1
		申光洙	潛女歌	대학				1
	舊韓末	申采浩	白頭山途中	대학				1
		韓龍雲	雪夜	천재				1
合		*37*名	*41*首					*66*回

<표 3> 中國 作家 漢詩作品 收錄 目錄

국가	시대	작가명	작품명	교과서				수록 횟수
中國	唐	王之渙	登鸛雀樓	두산				1
		孟浩然	春曉	중앙				1
		王維	送元二使安西	교학	정진	중앙	천재	4
			九月九日 憶山東兄弟	두산				1
			終南別業	금성				1
		李白	登金陵鳳凰臺	정진				1
			山中答俗人	대한		지학		2
			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	금성				1
		杜甫	絶句	두산		지학		2
			春夜喜雨	대한		중앙		2
			春望	천재				1
		張籍	秋思	새한				1
		李紳	憫農	천재				1
		賈島	尋隱者不遇	새한				1
		元稹	行宮	금성				1
		杜牧	山行	지학				1
		張繼	楓橋夜泊	금성				1
	宋	張兪	蠶婦	두산				1
合		*12*名	*18*首					*24*回

Ⅲ. 敎科書 收錄 漢詩의 內容別 分析

1. 自然景物의 詩

옛 선인들의 한시 작품에는 자연을 소재로 한 시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第7次 高等學校 漢文 敎科書의 10種에 수록된 총 59首 중에서 자연을 소재로 한 詩는 21편으로 약 36%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는 한시가 自然抒情과 인간의 보편적인 情緖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학 장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合一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자연의 이해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성을 배양하며 올바른 價値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장르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는 각기 다른 형상이면서 둘이 아닌 하나로서 合一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예술정신이자 철학 사상의 바탕이었으며, 그런 삶에 대한 지향은 전통적인 지식인들의 사고방식이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를 목표로 한 삶을 추구하는 작품들이 많은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경물에 관한 한시 작품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1) 山居 - 李仁老(1152-1220) (대학)

春去花猶在	봄이 갔으나 꽃은 오히려 피어 있고
天晴谷自陰	날이 개었으나 골짜기는 절로 그늘져있네.
杜鵑啼白晝	두견새가 대낮에 우니
始覺卜居深	비로소 사는 곳이 깊음을 알겠네.

이 시는 작가가 거주하는 곳이 얼마나 깊은 산중인가를 주변 환경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봄은 다 갔는데 꽃은 여전히 시절 모르고 피어 있고, 골 깊은 골짜기는 침침하다. 백주 대낮인데도 소쩍새[6]는 여태까지 밤인 줄 알고 울고 있다. 그만큼 산 속 깊은 곳에서 거처하고 있는 작가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소쩍새 소리는 갑자기 잊어버린 지난 세상살이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좌절된 뼈아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게 한다. 무신 정권기를 지낸 이인로는 어둑한 골짜기 그늘에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자신의 근심을, 봄 늦도록 남겨진 봄꽃을 좌절되었지만 포기하지 못한 자신의 꿈으로 동일시하는 무의식의 끈을 표출한 것이다. 그리고 結句에서는 그 자신이 세상과 너무나 먼 깊은 산골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2) 山夕詠井中月 - 李奎報(1168-1241) (대한)

山僧貪月色	산 속의 스님 달빛을 탐하여
幷汲一甁中	함께 하나의 병속에 길었네.
到寺方應覺	절에 이르면 바로 깨닫겠지
甁傾月亦空	병을 기울이면 달빛 또한 텅 비는 것을.

산 속의 스님이 우물에 비친 달그림자를 보고, 달빛을 탐하여 물과 함께 하나의 병속에 길었다. 그러나 절에 도착해서 병을 기울이면 달빛은 보이지 않고 물만 떠온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절 밖 우물 속에 있던 월색이 절로 돌아와서는 空으로 변했다는 것은 佛道를 깨닫고 나면 一切皆空으로 돌아감을 상징한 것이다. 곧 般若心經에서 강조한 色卽是空의 사상을 20字의 五言絶句로 응축하고 매구의 끝 자를 色·中·覺·空·으로 한 것은 절묘한 鋪置이다.[7] 여운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

6) 정민, 『한시속의 새, 그림속의 새』 둘째 권, 효형출판, 2003, p.77. "원문에서는 두견이라 했지만 사실은 소쩍새다. 두견이는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지만 소쩍새는 밤에만 운다. 작가가 실제 들은 것은 소쩍새의 울음소리이다."

7) 신용호, 『한문학과 한문교육』 上, 보고사, 2004, p.352 참조.

(3) 春[8](春興) - 鄭夢周(1337-1392) (교학·금성·정진·중앙)

春雨細不滴　　봄 비 가늘어 방울지지 않더니
夜中微有聲　　밤중에야 미미하게 빗소리 들리네.
雪盡南溪漲　　눈 녹은 남쪽에는 시냇물 불어나
草芽多少生　　풀싹은 얼마나 돋아났을까?

화자는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에 생명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 밤이 되어서야 사방이 고요해지니 비소로 가는 빗소리가 들린다. 빗소리를 듣고 있자니 불현듯 봄을 느낀다. 비가 그치면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물로 남쪽 시냇물도 불어날 것이다. 새싹이 새로 돋는 자연의 새로운 생명에 대한 애정과 설레는 감흥을 읊음과 동시에 봄을 맞이하는 작가의 기대감이 나타나있다. 이 시는 杜甫의 <春夜喜雨>라는 시의 首聯과 前聯과 많이 닮은 점이 있는데 봄비를 제재로 한 것, 비가 풀을 싹트게 한다는 것, 빗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표현을 들 수 있다.[9] 학습자가 정몽주의 이 시를 학습하면서 그것과 비슷한 두보의 작품 또한 연결하여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送僧之楓岳[10] - 成石璘(1338-1423) (두산·천재)

一萬二千峯　　금강산 일만 이천 봉
高低自不同　　높낮이가 제각기 같지 않네.

---

8) 『圃隱集』에서 詩題는 <春>으로 되어 있는데, '교학', '금성', '정진'에서는 출전을 『圃隱集』으로 하고 詩題는 <春興>으로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니 바로잡아야 한다.
9) 이종건, 『한시가 있어 이야기가 있고』, 새문사, 2003, p.65 참조.
10) 閔丙秀, 『韓國漢詩講解』, 太學社, 1995, p.158. "『國朝詩刪』에는 제목이 <楓岳>으로, 『列朝詩集』에는 <送人之金剛山>으로 되어 있다. 『東文選』에 '上'이 '出'로 『箕雅』, 『列朝詩集』에는 '高處'가 '何處'로 되어 있다." 또한 '두산', '천재' 모두 원전의 출처를 『靑丘風雅』로 기재하고 있으나 '천재'에서는 <金剛山>으로, '두산'에서는 <送僧之楓岳>으로 제목을 달리하고 있다.

君看日輪上　　그대는 해 오름을 보라
高處最先紅　　높은 곳이 가장 먼저 붉어진다네.

成石璘은 승려들과 가깝게 사귀어 승려에게 준 시편이 많은데 이 작품 역시 금강산에 가는 스님을 전송하며 보낸 名作이다. 금강산의 수없이 많고 높고 낮은 봉우리를 형용하였다. '日輪'은 태양을 말하는데 태양이 떠오를 때 가장 높은 봉우리가 가장 먼저 햇빛을 받아 붉게 된다는 표현이 이 시에서 가장 운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제목에서 나타난 것과 달리 "금강산과 중은 처음부터 배제되고 있다. 이런 것이 宋詩風에서 恒用하는 수법이다. 承句의 '高低自不同'는 宋 蘇軾의 <題西林寺壁>가운데 '遠近高低各不同'을 점화한 것으로 송시와의 영향관계는 이로써도 확인이 가능하다."[11] 자연의 이치를 황홀하면서도 장엄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5) 訪金居士野居 - 鄭道傳(1342-1398) (교학·대학)

秋陰漠漠四山空　　가을 기운 아득하고 온 산이 비었는데
落葉無聲滿地紅　　낙엽은 소리 없이 져 땅 가득 붉네.
立馬溪橋問歸路　　시냇가 다리에 말 세워 갈 길을 물으니
不知身在畵圖中　　이 몸이 화폭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했네.

이 시는 金居士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도중 작자의 눈앞에 펼쳐진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여 지은 작품으로 "許筠은 이 시를 가리켜 '玲瓏圓轉, 優入唐域'이라 했고, 洪萬宗은 '詩中有畵'라 평했다."[12] 起句와 승구에서 김거사를 찾아가는 도중에 낙엽이 떨어져 가을 산이 텅 빈 모습을 그리고, 텅 빈 산의 모습과는 반대로 낙엽으로 가득한 땅이 붉은 빛으로 물든 경치를 묘사하였다. 轉句에서는 "기구와 승구의 아름

11) _____, 『韓國漢詩代表作評說』, 太學社, 2006, p.112.
12) _____, 위의 책, p.120.

다운 경물 속에 시인을 던져두어 시인 자신이 그림 같은 경물의 일부가 되도록 하였다."[13] 결구에서 자신의 모습을 마치 화폭 속에 있다고 하여 주위의 아름다운 경치를 정감 있게 표현하였다.

(6) 新雪 - 李崇仁(1347-1392) (금성)

蒼茫歲暮天	아득한 연말의 하늘
新雪遍山川	첫 눈이 산천을 덮었네.
鳥失山中木	새는 산중의 나무를 잃고
僧尋石上泉	스님은 돌 위의 샘을 찾네.
飢烏啼野外	굶주린 까마귀 들녘에서 울고
凍柳臥溪邊	얼어붙은 버드나무 시냇가에 누웠네.
何處人家在	어느 곳에 인가가 있는지
遠林生白煙	먼 숲에서 흰 연기 피어오르네.

첫눈이 내린 다음의 풍경을 사실화처럼 나타낸 시이다. 이숭인의 시세계를 요약하여 흔히 '簡潔' 또는 '典雅'하다고 하는데 이 시는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작품이다. 욕심을 내거나 다듬는 기교도 애써 부리지 않아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느낌을 준다.[14] 눈이 쌓여 고요한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까마귀의 울음소리, 샘을 찾는 스님, 피어오르는 인가의 연기 등의 소재를 사용하여 정적인 주위환경 속에서 동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7) 有客[15] - 金時習(1435-1493) (정진)

---

13) 이종묵,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3, p.454.
14) 閔丙秀, 『韓國漢詩史』, 太學社, 1997, p.187 참조.
15) '정진'은 이 시의 출전을 『梅月堂集』이라 했는데, 출전과는 다르게 미련의 끝 자인 '愁'를 '憂'로 오기하고 있다.

有客淸平寺　　청평사의 나그네
春山任意遊　　봄 산을 마음대로 노니네.
鳥啼孤塔靜　　새 울어도 외로운 탑 고요하고
花落小溪流　　꽃은 작은 시내로 떨어져 흐르네.
佳菜知時秀　　아름다운 나물은 때를 알아 빼어나고
香菌過雨柔　　향기로운 버섯은 비를 맞아 부드럽네.
行吟入仙洞　　다니며 읊고 신선 골에 들어서니
消我百年愁　　나의 백년 근심이 사라지네.

이 시는 金時習의 부인이 죽은 뒤 관동 유람을 떠나 춘천의 淸平寺에 들렀을 때 지은 시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에 유유자적하는 그의 모습에는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頷聯에서 꽃잎이 떨어진 시냇물과 산나물, 향기로운 버섯, 이러한 봄을 정취를 느끼게 하는 요소들은 그에게 외로움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시를 읊으며 仙洞에 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晉나라의 陶淵明이 지은 <桃花源記>의 武陵桃源과 연결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상세계로서의 장소보다는 그동안 쌓인 근심을 버리고 자조하며 스스로의 성찰을 위한 작자의 의도적인 발걸음으로 보아야 한다.

(8) 天王峯[16] - 曺植(1501-1572) (천재)

請看千石鐘　　청컨대 천석의 종을 보게나
非大扣無聲　　크게 치지 않으면 두드려도 소리가 없네.
萬古天王峯　　만고의 천왕봉은
天鳴猶不鳴　　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네.

16) 閔丙秀, 앞의 책, 1997, p.264. 이 작품에 대해서 "申欽은 『晴窓軟談』에서 '조식이 절의를 숭상하여 벽처럼 우뚝 천길 높이 서 있는 기상이 있다.'고 하였고 또 '시운이 호방할 뿐만 아니라 자부심이 적지 않다.'고 하였다. 지리산처럼 거대한 산을 바라보면서 굳건한 자세를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읽을 수 있다."

이 시는 조식의 의연함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자가 바라보는 천왕봉의 모습을 마치 종의 모습에 비유하여 지은 것이다. 천석의 종은 크기가 너무 커서 크게 두드리지 않으면 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하늘이 울어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천왕봉의 모습이 굳건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천왕봉의 웅장함과 기개는 화자의 浩然한 마음과도 일치하여 곧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으니 작자의 자부심 또한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9) 花石亭 - 李珥(1530-1584) (지학·새한)

林亭秋已晩	숲속 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으니
騷客意無窮	시인의 뜻은 끝이 없네.
遠水連天碧	먼 곳의 물은 하늘에 잇닿아 푸르고
霜楓向日紅	서리 맞은 단풍은 해를 향해 붉네.
山吐孤輪月	산은 외로운 둥근 달을 토해내고
江含萬里風	강은 만리의 바람을 머금었네.
塞鴻何處去	변방의 기러기는 어느 곳으로 가는가
聲斷暮雲中	울음소리 저무는 구름 속에 끊어지네.

이 시는 栗谷 李珥가 7세 때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이는 여가가 있을 때 임진강가에 있는 花石亭을 찾았고 벼슬에서 물러난 뒤로도 이곳에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詩와 학문을 논하였다. 화석정에서 느끼는 쓸쓸한 심정이 음악성과 회화성으로 잘 표현되어 뛰어난 시로 평가받고 있다. 함련의 '碧'과 '紅'의 색채 대비가 뚜렷하고 頸聯의 '吐'와 '含'의 동적인 이미지와 정적인 이미지가 대조를 이뤄 율시의 對偶 특징을 잘 살려내고 있다. 또한 尾聯의 시각을 청각적 심상으로 변화 있게 표현하여 변방에서 부는 바람과 기러기의 울음소리가 작가의 심리 상태를 고조시키고 있다. 정자에서 맞이하는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시이다.

(10) 佛日菴贈因雲釋[17](山寺) - 李達(1539-1612) (정진)

寺在白雲中　　절이 흰 구름 속에 있으니
白雲僧不掃　　흰 구름을 스님이 쓸지 않네.
客來門始開　　손님이 와서야 문을 비로소 여는데
萬壑松花老　　온 골짜기에 송화가 무르익었네.

이 시는 작자가 불일암이라는 암자의 스님인 인운에게 준 작품이다. 흰 구름이 가득한 산중의 절에서 스님은 오래도록 밖에 나오지 않은 채 수행을 한다. 이에 적막한 절간에 쌓여 있는 것은 먼지가 아니라 구름이다. 구름을 쓸어낸다고 하여 운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손님이 찾아와서야 비로소 문을 열어보니 온 골짜기에 송화가 무르익었다. 이것은 시간이 이미 꽤 지나 계절이 바뀜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속세와 단절하고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에 초탈한 의연한 모습의 스님을 자연의 경치와 더불어 한 폭의 그림 같이 표현했다.

(11) 月溪途中 - 劉希慶(1545-1636) (대학)

山含雨氣水生煙　　산은 우기 머금고 물에선 안개 피어나는데
靑草湖邊白鷺眠　　푸른 풀 돋은 호숫가엔 백로가 졸고 있네.
路入海棠花下轉　　길 따라 해당화 아래로 구부러져 들어가니
滿枝香雪落揮鞭　　온 가지의 흰 꽃향기 채찍 끝에 떨어지네.

이 시는 멀리 있는 것에서 가까이 있는 것으로 시선이 옮겨져 한 폭의 풍경화 같은 작품으로 여유롭고 한가로운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멀리로는 산이 비를 머금어 푸르고 물에선 하얀 안개가 자욱하다. 가까이에는 푸른 풀이 우거진 호수에서

17) '정진'에서는 이 작품의 시제를 <山寺>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백로가 한가로이 떠다닌다. 그런 호숫가 옆으로 화자가 말을 타고 달리며 채찍을 휘두르자 길가에 만발한 해당화가 눈처럼 휘날려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아름다운 경치를 뛰어난 표현력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12) 途中 - 權韠(1569-1612) (지학)

日入投孤店	해는 저물어 외딴 객점에 드니
山深不掩扉	산이 깊어 사립문도 닫지 않았네.
鷄鳴問前路	닭이 울어 갈 길을 물으니
黃葉向人飛	누런 잎이 날 향해 날려 오네.

權韠은 벼슬자리에 마음이 없어 산야를 떠돌며 시와 술을 즐기며 지냈고, 스스로 자기의 성품이 강건하고 바른말을 하기 좋아하여 화를 당하기 십상이라 여기고 숨어 지내려 했다. 이 시에서도 세상을 버리고 떠돌이로 지내는 작가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해가 저문 주막은 깊은 산 속이라 인적이 드물어 밤에도 사립문을 닫지 않았다.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닭이 우는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나려 물으니, 바람에 흩날려 떨어지는 낙엽이 나를 향해 날아와 늦가을에 길가는 작자의 외로움이 드러난다.

(13) 金剛道中[18] - 姜柏年(1603-1681) (두산)

百里無人響	백 리에도 사람 소리 없고
山深但鳥啼	산은 깊어 단지 새 울음만 있네.
逢僧門前路	스님을 만나 앞길을 물어보았는데

18) 閔丙秀, 『韓國漢詩史』, 太學社, 1997, p.364. "이 시를 鄭斗卿에게 보이자, 정두경은 承句의 但을 山자로 바꾸면 더욱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강백년도 동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金得臣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洪萬宗은 이 시를 『詩評遺稿』에 뽑아 싣고 '시인의 아름다운 작품이다.(詞人佳品)'라고 평가하였다. 唐詩의 평범을 실감케 하는 작품이다."

僧過路還迷　　스님이 지나가자 길이 도로 헷갈리네.

작자는 금강산을 오르며 백 리 길을 멀리 가다가 너무 깊은 곳에 이르러 길을 헤매었다. 게다가 인적도 끊긴 곳에서 들리는 것이라곤 새 울음소리뿐이다. 그러다 다행히 지나가는 스님을 만나게 되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물었다. 잘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스님이 떠나자 도로 헷갈려 하는 시인의 모습에서 다시금 혼자 남은 산 속에서의 적막함이 더해지는 작품이다.

(14) 金剛山 - 宋時烈(1607-1689) (새한)

山與雲俱白　　산과 구름이 모두 희니
雲山不辨容　　구름과 산의 모습을 분별하기 어렵네.
雲歸山獨立　　구름이 걷히고 산이 홀로 서 있으니
一萬二千峯　　일만 이천 봉 금강이라네.

이 시는 천지간에 우뚝 서 있는 금강산을 마주한 느낌을 표현한 시로 노론의 대학자였던 송시열의 시이다. 금강산에 구름이 내려앉으니 온통 산색이 흰 빛이 되니 산과 구름이 마치 하나인 듯한 모습을 그렸다. 시간이 경과하여 구름이 걷히고 일만 이천 봉우리의 금강산이 우뚝 선 모습이 드러난다. 장엄하며 기개 있는 금강산의 모습이 志士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15) 登鸛雀樓 - 王之渙(688-742) (두산)

白日依山盡　　해는 산에 의지해 지고
黃河入海流　　황하는 바다로 들어가네.
欲窮千里目　　천 리를 끝까지 바라보려고

更上一層樓　　다시 누각을 한 층 더 오르네.

이 시의 기구에서 관작루에 올라서 바라본 경치를 감상하다 멀리서 산속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시상을 일으켰다. 그러다 시선은 누대의 바로 앞에 흐르고 있는 황하의 흐름으로 시선이 옮겨져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으로 기구에서 일으킨 시상을 잇고 있다. 해가 저물면서 내려앉은 궤적이 縱的인 이동이라면 이에 비해 황하의 흐르는 물길은 평면적이면서 橫的인 이동으로 종과 횡의 구도가 자연스레 다가온다. 일몰과 강물이 흐르는 實景을 통해서 자연의 日常性과 永續性을 표현하였다. 그러다 그 속에 묻혀 있는 사람, 즉 나의 존재감으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황하의 광활한 풍광을 더 보고 싶어서 현재 올라왔던 층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장엄한 기상을 느끼게 하는 名篇이다.

(16) 春曉 - 孟浩然(689-740) (중앙)

春眠不覺曉　　봄 잠에 새벽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處處聞啼鳥　　곳곳에서 새 우는 소리 들려오네.
夜來風雨聲　　밤사이 비바람 소리에
花落知多少　　꽃이 얼마나 졌을까?

작가는 봄의 나른함으로 뒤늦게 수면에서 깨어났다. 작가가 간밤의 비바람에 떨어졌을 꽃을 생각함으로써 꽃에 대한 애틋한 정서를 표현함과 동시에 봄이 지나감에 대한 아쉬움을 읊었다. 기구와 승구에서 봄의 생명력과 활력에 대한 경이감을 나타내었고, 전구와 결구에서 하룻밤 비바람에 떨어지는 꽃잎과 같이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연민을 대조하여 표현함으로써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느낌을 극대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비바람에 떨어지는 생명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는 작가의 섬세한 감각을 볼 수 있어 높이 평가되는 작품이다.

(17) 終南別業 - 王維(699?-759) (금성)

中歲頗好道	중년에 자못 도를 좋아하여
晩家南山陲	만년에 종남산 기슭에 거처하였네.
興來每獨往	흥이 나면 매양 홀로 찾아가니
勝事空自知	좋은 일을 그저 혼자서만 아네.
行到水窮處	가다가 물이 다하는 곳 이르면
坐看雲起時	앉아서 구름 이는 때를 보네.
偶然値林叟	우연히 숲 속의 노인을 만나면
談笑無還期	담소하느라 돌아갈 줄 모르네.

王維는 불교에 귀의하여 '詩佛'이라 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작품 속에서 도를 좋아하였다는 것은 불교에 귀의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는 안록산의 난이 평정되고 종남산 기슭에서 은거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소요하며 지냈는데 이 시기에 지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의 경치를 마음가는대로 소요하며,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담소 또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에서 작자의 여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18) 山中答俗人 - 李白(701-762) (대한·지학)

問余何事棲碧山	나에게 무엇 때문에 청산에 사느냐고 물어
笑而不答心自閑	웃으며 대답하지 않지만 마음 절로 한가롭네.
桃花流水杳然去	복사꽃이 흐르는 물에 아득히 떠나가니
別有天地非人間	별천지요 인간세상이 아니네.

이 시는 李白의 시이다. 속세를 떠나 자연에 은거하는 화자에게 혹자가 무슨 일로 이곳에 사느냐 물으니 화자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는다. 이미 속세를 벗어나 仙景에

젖어든 화자에게는 말이나 논리의 세계를 뛰어넘은 상태이다. 따라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오히려 구차하게 느껴질 뿐이다. 복사꽃이 물에 흘러 내려가는 모습을 보니 이곳이 武陵桃源이라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桃花源記>에서 어떤 어부가 복사꽃 근처의 입구에서 별천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소재로 얻어 쓰면서 이백이 평생 꿈꾸던 신선의 세계였던 무릉도원을 그려내었다. 이백의 작품 중에서도 그의 호방한 작품세계나 낭만적인 삶의 자세가 잘 드러난 작품이다.

(19) 春夜喜雨 - 杜甫(712-770) (대한·중앙)

好雨知時節	좋은 비는 시절을 알아
當春乃發生	봄을 맞이하여 피어나게 하네.
隨風潛入夜	바람 따라 가만히 밤에 들어
潤物細無聲	사물을 적시지만 가늘어 소리가 없네.
野徑雲俱黑	들길에는 구름도 함께 어둡고
江船火獨明	강의 배엔 불만 홀로 밝네.
曉看紅濕處	새벽녘 붉게 젖은 곳을 보니
花重錦官城	금관성에도 꽃이 무성하네.

두보가 安祿山의 亂中에 유랑하면서 쓴 시이다. 봄날의 반가운 비를 제재로 하여 봄날 밤의 서정을 나타내었다. 수련에서는 봄비가 정겹게 내리는 기쁨과 만물 생성의 천지조화를 그리고 있다. 함련에서 봄비가 몰래 스며들고 소리 없이 만물을 적시며, 경련에서 구름 낀 어두운 길과 유독 밝은 강가의 배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미련에서는 새벽녘 붉게 물들어 있는 곳은 금관성 안에 핀 꽃들일 것이라며 미래의 밝은 희망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20) 尋隱者不遇 - 賈島(799-843) (새한)

松下問童子　　소나무 아래에서 동자에게 물으니
言師採藥去　　스승은 약초 캐러 가셨다고 말하네.
只在此山中　　다만 이 산중에 계실 것이나
雲深不知處　　구름 깊어 계신 곳을 모르겠네.

깊은 산 속에서 悠然히 살아가는 은자의 모습이 잘 나타난 시이다. 동자의 대답에서 세속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약초나 캐며 나날을 보내는 은자의 모습은 여유로움과 淸淨함이 느껴진다. 결구에서 깊은 산 속의 모습을 '山深'으로 표현하지 않고 '雲深'이라 표현한 데서 더욱 깊은 맛을 느끼게 한다. 은자를 만나지 못한 작자 역시 은자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21) 山行 - 杜牧(803-853) (지학)

遠上寒山石徑斜　　멀리 한산을 오르노라니 돌길이 비스듬히 나있는데
白雲生處有人家　　흰 구름 이는 곳에 인가가 있네.
停車坐愛風林晩　　수레를 멈추고 앉아 늦은 단풍 바라보니
霜葉紅於二月花　　서리 맞은 잎은 이월의 꽃보다 더 붉네.

가을 산을 즐기는 작가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비스듬히 나있는 돌길을 따라 가을 산에 오르니 저 멀리 인가가 보인다. 행차를 멈추고 붉게 물든 단풍 숲을 즐기는 모습에서 작가의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결구의 물이 든 단풍이 마치 이월에 피는 꽃보다 더 붉고 아름답다는 표현은 繪畫性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詩中有畵가 느껴지며 자연의 아름다운 정서를 조성하는데 우수한 표현이다. 이 때문에 人口에 膾炙되는 유명한 시이다.

자연경물 감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들의 수록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首를 다루고 있고 29回에 걸쳐 수록하고 있다. 전체의 한시 작품 중에 자연경물의 감상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 자연경물의 감상을 내용으로 한 시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제시한다.

<표 4> 自然景物의 感想을 內容으로 한 詩

한시	작가	시대	수록 횟수	한시	작가	시대	수록 횟수
山居	李仁老	高麗	1	途中	權韡	朝鮮	1
山夕詠井中月	李奎報	高麗	1	金剛道中	姜柏年	朝鮮	1
春(春興)	鄭夢周	高麗	4	金剛山	宋時烈	朝鮮	1
送僧之楓岳	成石璘	朝鮮	2	登鸛雀樓	王之渙	唐	1
訪金居士野居	鄭道傳	朝鮮	2	春曉	孟浩然	唐	1
新雪	李崇仁	高麗	1	終南別業	王維	唐	1
有客	金時習	朝鮮	1	山中答俗人	李白	唐	2
天王峯	曺植	朝鮮	1	春夜喜雨	杜甫	唐	2
花石亭	李珥	朝鮮	2	尋隱者不遇	賈島	唐	1
佛日菴贈因雲釋(山寺)	李達	朝鮮	1	山行	杜牧	唐	1
月溪途中	劉希慶	朝鮮	1				
21首				29回			

2. 情恨과 懷古의 詩

정한과 회고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시, 이별의 정한을 그린 시, 회고와 술회에 대한 시로 분류하였다. 전체 59首 중에서 19首로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인간의 내면에 지니고 있는 정서를 예술적으로 표출했던 한시의 특성상 情恨과 懷古를 읊은 작품이 다수 존재하기에 미친 영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지는 작품도 존재하는데 꿈과 희망이 있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시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작품은 교과서에서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에서 구체적인 작품을 살펴보도록 한다.

1) 故鄕에 대한 그리움

(1) 秋夜雨中 - 崔致遠(857-898) (교학·지학)

秋風唯苦吟	가을바람에 괴로이 읊노니
世路少知音	세상에는 나를 알아주는 이 없네.
窓外三更雨	창 밖에는 한밤중에 비 내리는데
燈前萬里心	등불 앞 내 마음은 만리를 달리네.

이 시의 작자인 崔致遠은 신라 말엽의 문신으로 12세에 당나라로 건너가 유학하여 18세에 賓貢科에 장원으로 합격했다. 이 시는 당시 작자가 중국에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읊은 것이다. 자신의 큰 뜻을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아쉬움과, 타향살이를 하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그리움의 情緖 표현이 잘 되어 있어서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시간적 배경을 비 내리는 가을밤으로 하여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화자의 고뇌와 고독이 심화되었다. 멀리 고향을 떠나와 벼슬하고 있는 자신의 큰 포부를 알

아주는 이 없는 쓸쓸한 가을 한밤중에 잠들지 못하고 輾轉反側하다 등잔을 마주하였으나 마음은 저 멀리 고향을 향해 달리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짙게 배어나오는 작품이다.

(2) 踰大關嶺望親庭[19] - 申師任堂(1504-1551) (금성·중앙·지학)

慈親鶴髮在臨瀛	늙으신 우리 어머니 흰 머리 되어 강릉에 계시는데
身向長安獨去情	이 몸 서울을 향해 홀로 떠나는 심정이여!
回首北村時一望	고개를 돌려 북촌을 때때로 한 번씩 바라보니
白雲飛下暮山靑	흰 구름은 날아 내리고 저문 산은 푸르기만 하네.

기구는 고향땅인 江陵에 어머님을 남겨두고 떠나는 심정을, 승구는 서울로 홀로 떠나면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걱정하는 심정을, 전구는 점점 멀어지는 고향을 바라보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결구에서는 흰 구름이 떨어지는 모습을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림과 동시에 흰 구름이 되어 고향에 닿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는 저무는 산이 푸르기만 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화자의 슬픔이 짙게 나타난다. 흰머리의 늙으신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려니 옮기는 발걸이 무겁다. 몸은 서울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마음이 떠나지 않아 고개를 돌려 자꾸 고향 쪽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그리는 딸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이미 멀어진 고향마을이 저 멀리의 석양이 걸려있는 산과 함께 시야에 가득 차 슬픔이 절정을 이뤘다.

(3) 偶吟 - 洪顯周(1793-1863) (두산)

19) '금성'은 이 시의 시제를 <泣別慈母>로, 출전은 『栗谷全書』라고 소개하고 있고, '중앙'은 시제를 <踰大關嶺望親庭>으로, 출전은 『大東詩選』으로 했다. '지학'은 시제를 <踰大關嶺望親庭>으로, 출전은 『栗谷全書』로 하여 각각 시제와 원전을 달리 표시하고 있다.

旅夢啼鳥喚　　객지에서 새 소리에 깨어나니
歸思繞春樹　　고향 생각은 봄 나무에 맴도네.
洛花滿空山　　떨어진 꽃이 빈산에 가득하니
何處故鄕路　　어느 곳이 고향으로 가는 길인가?

이 시의 작자는 객지에서 봄을 맞이하고 있다. 새의 울음소리는 꿈결 속에서 작자의 심상을 자극하여 고향생각이 나게 했다. 고향생각은 봄 나무에 맴돌고 시선은 봄바람에 날려 온 산에 가득하게 흐드러진 꽃잎으로 옮겨간다. 떨어진 꽃잎 때문에 고향으로 가는 산길의 자취는 없어졌다. 고향으로 당장 향할 수는 없어서 가는 길이라도 바라보면서 대신해서 마음을 달래고 싶었으나 쌓인 꽃 때문에 알 수 없다는 표현으로 여운을 남기고 있는 작품이다.

(4) 九月九日憶山東兄弟 - 王維(699?-759) (두산)

獨在異鄕爲異客　　홀로 타향에 있어 이객이 되니
每逢佳節倍思親　　매번 좋은 명절 만날 때마다 어버이 생각 배가 되네.
遙知兄弟登高處　　멀리서 형제들이 높은 산에 올라
遍揷茱萸少一人　　두루 수유를 꽂다 한 사람이 적은 줄을 알 것이네.

이 시 역시 작가가 타향에 있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이다. 매번 타향에서 명절을 맞이하니 세월이 지날수록 작가의 고향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고향에서는 어김없이 명절 행사를 하면서 보내고, 형제들은 수유를 서로 꽂다가 문득 작가 자신이 빠졌음을 느끼리라 상상하고 있다. 이는 행여 자신의 존재가 잊히진 않을까 하는 염려 섞인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작가 자신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형제들 또한 자신을 생각해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극대화된 작품이다.

(5) 絶句 - 杜甫(712-770) (두산·지학)

江碧鳥逾白　　강이 푸르니 새는 더욱 희고
山靑花欲然　　산이 푸르니 꽃은 불타려는 듯하네.
今春看又過　　올 봄도 또한 지나가니
何日是歸年　　어느 날이 돌아갈 해인가?

이 시는 詩聖이라 불리는 唐나라 시인인 杜甫가 53세에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두보는 安祿山의 亂이 일어나 이를 피해 成都에 머물었는데 기약 없이 세월만 보내면서 올해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봄이 지나가는 작가의 안타까운 심정을 읊은 것이다. 푸른 강물위에 나는 하얀 새와 푸른 산에 핀 붉은 꽃의 표현이 '碧·白·靑·紅'의 색채의 조화를 이뤄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봄의 정경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작가의 현실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초라함에 쓸쓸한 마음을 토로했다.

(6) 秋思 - 張籍(766-830) (새한)

洛陽城裏見秋風　　낙양성 안에서 가을바람 맞고
欲作家書意萬重　　집에 보낼 편지 쓰려 하니 생각이 만 겹이네.
復恐忽忽說不盡　　너무 바빠 할 말을 다 쓰지 못 하였나 걱정스러워
行人臨發又開封　　행인이 떠남에 임해 또 다시 봉한 것을 뜯어보네.

멀리 가족을 떠나 객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의 애달픈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기구에서 秋風으로 인하여 시상을 일으켰다. 이제는 제법 쌀쌀해진 기운을 느끼게 되니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걱정에 안부가 궁금했다. 편지를 쓰려니 고향 생각이 수만 가지가 떠오른다. 편지에 쓸 내용이 짧지는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혹시나 할 말을 다

하지 못했을까 걱정되어 고향으로 가는 인편에 보내려고 했던 편지를 출발하기 전에 다시 뜯어서 확인해 본다. 화자의 가족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묻어나오는 시이다.

(7) 楓橋夜泊 - 張繼(?-?) (금성)

月落烏啼霜滿天	달은 지고 까마귀 울고 찬 서리 하늘 가득한데
江楓漁火對愁眠	강가의 단풍과 고깃배의 등불 마주하여 시름 속에 조네.
姑蘇城外寒山寺	고소성 밖 한산사의
夜半鐘聲到客船	한밤중 종소리가 나그네 배까지 이르네.

이 시는 張繼가 배를 타고 가다 날이 저물어 풍교의 강가에 배를 대고 밤을 보내면서 지었다. 달도 기울고 까마귀 울어대는 이른 새벽에 밤새 내린 서리는 스산함을 더하고 있다. 화자는 강가의 단풍나무와 고기잡이배들의 등불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데 멀리 한산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귓전까지 닿아 시름을 더하고 있다. 객지에서 바라본 늦가을 밤의 정경과 화자의 심정을 빼어나게 묘사한 시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내용을 담은 시들의 수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7首를 다루고 있고 11回에 걸쳐 수록되고 있다.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故鄕에 대한 그리움을 內容으로 한 詩

한시	작가	시대	수록 횟수	한시	작가	시대	수록 횟수
秋夜雨中	崔致遠	新羅	2	絶句	杜甫	唐	2
踰大關嶺望親庭	申師任堂	朝鮮	3	秋思	張籍	唐	1
偶吟	洪顯周	朝鮮	1	楓橋夜泊	張繼	唐	1
九月九日 憶山東兄弟	王維	唐	1				
7首				11回			

2) 離別의 情恨

(1) 送人[20](大同江) - 鄭知常(?-1135) (교학·금성·대학·새한·정진·중앙·지학·천재)

雨歇長堤草色多　　비 갠 뒤 긴 언덕에 풀빛은 더욱 푸르고
送君南浦動悲歌　　남포에서 그대를 보내니 슬픈 노래 일렁이네.
大洞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은 어느 때나 마르리오
別淚年年添綠波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가네.

이 시는 '대한', '두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다. 원제는 <大同江>으로 李齊賢(1287-1367)은 『櫟翁稗說』에서 <大同江>시를 가장 높이 평가했다. 기구에서는 풀빛이 짙은 어느 봄날에 님과 이별하는 슬픔을 노랬다. 화자의 시선은 자신의 슬픈 처지와는 달리 강 둑 주위에서 더욱 아름다운 빛을 띤 풀에 머물러 이별한 이의 심정을 더욱 슬프게 한다. 승구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렸다. 이별을 상징하는 곳인 '남포'에서 님을 보내고 난 후에 바라본 파도의 모습은 작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슬픈 노래로 일렁이고 있다. 전구에서 시상을 전환하여 대동강 물이 언제 마를 것인가 하는 탄식은 이 시에서 가장 돋보이는 곳이다. 이어지는 결구에서 이별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 강물에 보태어져 마를 날이 없을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슬픔이 극대화 되었다.

(2) 無語別[21](閨怨) - 林悌(1549-1587) (금성)

---

20) '금성'은 이 시의 시제를 <送人>으로, 『大東詩選』을 출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오류이다. 『大東詩選』에는 <大同江>으로 되어 있고, 『東文選』에서 시제가 <送人>으로 되어 있으니 출전에 따라 시제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21) '금성'은 <無語別>을 <閨怨>으로 오기하고 있다.

十五越溪女　　열다섯 아리따운 아가씨가
羞人無語別　　남이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이별했네.
歸來掩重門　　돌아와서 문을 꼭꼭 닫고
泣向梨花月　　배꽃 가지의 달을 향해 눈물 흘리네.

'越溪女'는 중국 越지방의 여자라는 말로 중국의 대표적인 미인인 서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南男北女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월지방의 여자가 예쁘다는 말이다. 월지방은 양자강의 하류이기 때문에 물이 많은 지방이다. 그래서 溪女라고 했다.[22] 아리따운 소녀가 남들이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이별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행여 남이 볼까 두려워 문을 겹겹이 닫고 방에 난 창으로 배꽃 나뭇가지에 걸린 달을 바라본다. 님과의 이별에 대한 부끄러움과 서러움에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소녀의 감정 상태를 잘 묘사한 작품이다.

(3) 閨情[23] - 李玉峯(?-?) (대한·천재)

有約郎何晩　　약속 있었건만 낭군께선 어찌 이리 늦으실까
庭梅欲謝時　　뜰의 매화는 떨어지려 하네.
忽聞枝上鵲　　문득 나뭇가지 위의 까치 소리를 듣고
虛畫鏡中眉　　부질없이 거울 보며 눈썹 그리네.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간 님은 봄에 만나기로 했지만 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다. 작자는 문득 들린 까치 울음소리에 혹시 님이 오실 조짐인가 생각하여 고운 모습 보이려고 화장을 한다. 그렇지만 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막연한 기대에 헛되이 눈썹을 그리고 있는 자신을 깨닫는다. 이 시에서 화자의 애절함이 극에

22) 이종건, 『한시가 있어 이야기가 있고』, 새문사, 2003, p.244 참조.
23) '대학'은 이 시의 출전을 『大東詩選』으로 밝혀 오자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시의 출전에 있어 가장 오래된 책인 『嘉林世稿』를 따라 기구의 '來'를 '郎'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달하는 표현은 결구의 '虛'字라고 할 수 있다. 님을 기다리는 애절한 마음이 나타난다.

(4) 閨情[24] - 李玉峯(?-?) (대학)

平生離恨成身病	평생 이별의 한이 몸에 병이 되어
酒不能療藥不治	술로도 고치지 못하고 약으로도 다스리지 못하네.
衾裏淚如氷下水	이불 속 눈물은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과 같으니
日夜長流人不知	밤낮으로 길이 흘러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네.

이옥봉은 사대부의 첩으로 남편 趙瑗과 이별하고 평생의 한이 되어 그를 그리워하였다. 이 작품에서도 님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절실히 느껴진다. 님에 대한 그리움은 술이나 약과 같은 수단으로는 고쳐지지 않는다. 밖으로 드러내어 울지도 못하고 이불 속에 숨어 흘리는 눈물은 한 겨울 얼어붙은 빙판 아래 흐르는 물과 같다고 표현하였다. 누구에게 하소연 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알아주는 이 없음을 시로서 하소연이라도 하듯 이별의 한이 깊음을 느낄 수 있는 시이다.

(5) 自述[25](夢魂) - 李玉峯 (금성·대학)

近來安否問如何	요사이 안부를 묻노니 어떠하신지요
月白紗窓妾恨多	달 비친 사창에 저의 한이 많습니다.
若使夢魂行有跡	만약 꿈에 내 혼이 걸어간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門前石路已成沙	문 앞 돌길은 이미 모래가 되었을 게지요.

24) '대학'에서는 『嘉林世稿』와 다르게 전구의 '淚'를 '泣'으로 표시했으나 해석은 '淚'로 하여 '이불 속 눈물이야'라고 하였다. 오자를 바로잡아야 한다.
25) '대학'에서는 『嘉林世稿』의 <自述>과 다르게 <夢魂>으로 되어 있다. 또한, 轉句의 '白'을 '到'로, 結句의 '已'를 '半'으로 표기하여 오자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 작품 역시 작자가 남편을 그리워하며 지은 작품이다. 기구에서 그리운 남편의 안부를 물으며 시를 전개하고 승구에서 남편을 향한 그리움이 사무친 자신의 한스런 마음을 이어 받았다. 남편을 보고 싶은 마음을 꿈속의 일로 가정하는 참신한 표현으로 시상을 전환하여 결구에서 돌이 모래로 변하였으리라는 과장으로 맺는다. 이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 밤마다 집을 셀 수도 없이 드나들었다는 말이 숨어있다. 직설적인 표현보다 훨씬 운치가 있고 사무치는 그리움과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있다.

(6) 別情人 - 無名氏 (지학)

興仁門外無名巷	동대문 밖 이름 없는 거리에
一帶沙川五柳斜	한 줄기 모래 내에 휘늘어진 다섯 버들
墻北墻南花下路	담장 여기저기 꽃이 핀 아랫길
前三後七是吾家	앞에서 셋 뒤에서 일곱 번째가 내 집이라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며 차마 직접 말하지 못하고, 시로서 자신의 집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마치 지도를 그리듯 자세히 설명하면서 부끄러움 보다는 적극적인 여성의 태도가 인상적이다. 감정 묘사보다는 사실적으로 표현한 시구 속에서 작자가 집에 돌아가 님을 기다리면서 애태우는 모습이 드러난다.

(7) 述懷 - 朴竹西(1817-1851추정) (대한)

不欲憶君自憶君	님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절로 님 생각나는데
問君何事每相分	님께 묻노니, 무슨 일로 매번 헤어지는가?
莫言靈鵲能傳喜	영령한 까치가 기쁜 소식 전한다 말하지 마오
幾度虛驚到夕嚥	몇 번이나 헛되이 놀라기를 저녁까지 이르렀는가?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끝없이 일어나는 님에 대한 그리움은 헤어짐에 대한 원망으로 드러난다. 까치가 울 때마다 혹시 님이 오셨나 하는 마음에 깜짝깜짝 놀라지만 결국 날이 저물었다. 반복된 실망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말에 원망이 생길 정도이다. 앞에서 본 李玉峯의 <閨情>에서 까치를 소재로 한 표현과 화자의 정서가 닮았다. 이 작품 역시 님을 기다리는 작자의 애처로운 마음이 간절한 작품이다.

(8) 送元二使安西 - 王維(699?-759) (교학·정진·중앙·천재)

渭城朝雨浥輕塵	위성의 아침에 비가 가벼운 티끌을 적시니
客舍青青柳色新	객사에는 푸릇푸릇 버들 색이 새롭네.
勸君更盡一杯酒[26]	그대에게 다시 한 잔 술 다 마시도록 권하노니
西出陽關無故人	서쪽 양관으로 나서면 친한 벗 없으리.

이 시는 '陽關'이 이별하는 장소였기에 일명 <陽關曲>이라고도 한다. 陽關은 중국 서쪽 변방으로 나가는 관문이다. 위성의 아침 정경은 흙먼지가 가라앉은 맑은 모습으로 푸릇푸릇한 버들과 함께 밝은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 이는 결구에서 벗을 떠나보내야 하는 석별의 정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 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애송되었고, 친구와의 이별이 간절하여 부르는 사람에게 짙은 호소력을 주어서 연속 세 번을 불렀는데, 이 때문에 '陽關三疊'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9) 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27] - 李白(701-762) (금성)

26) '정진'에서는 '盡'을 '進'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27) '금성'에서는 이 시의 출전을 『全唐詩』라고 밝혔으나 시제 앞부분에서 '黃鶴樓' 3자를 빠뜨렸다. 그리고 기구의 '故人'을 '古人'으로 오기하면서 해석은 '옛 친구'로 해석했다. 또한 전구의 '山'도 '空'으로 오기하였다.

故人西辭黃鶴樓　　친구를 서쪽 황학루에서 이별하고
煙花三月下揚州　　아지랑이 일고 꽃 피는 3월에 양주로 내려가네.
孤帆遠影碧山盡　　외로운 돛단배 먼 그림자 푸른 산으로 사라지고
唯見長江天際流　　오직 장강이 하늘 끝으로 흐르는 것만 보이네.

아름다운 봄날 李白은 친구인 孟浩然이 서쪽의 廣陵으로 떠나는 것을 전송하며 황학루에서 송별연을 했다. 아지랑이 일고 꽃 피는 봄날의 경치는 벗과의 이별을 더욱 애석하게 하고 있다. 배를 태워 벗을 보내고서 떠나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니 벗이 탄 배는 저 멀리 수평선과 닿아 사라진다. 완전히 수평선으로 사라지고 나니 오직 보이는 것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긴 장강의 물결뿐이다. 벗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리움이 커져가는 작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별의 정한에 관한 시들의 작품 수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9首를 다루고 있고 20回에 걸쳐 수록되고 있다. 작품 수의 범위는 좁지만 여러 교과서에 걸쳐 수록되고 있다. 9首 중 7首가 님과의 이별을 내용으로 하고, 2首는 벗과의 이별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님과의 이별을 다룬 시가 지배적이었다.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離別의 情恨을 內容으로 한 詩

한시	작가	시대	수록횟수	한시	작가	시대	수록횟수
送人	鄭知常	高麗	8	別情人	無名氏	朝鮮	1
無語別(閨怨)	林悌	朝鮮	1	述懷	朴竹西	朝鮮	1
閨情1	李玉峯	朝鮮	2	送元二使安西	王維	唐	3
閨情2	李玉峯	朝鮮	1	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	李白	唐	1
夢魂	李玉峯	朝鮮	2				
9首				20回			

3) 懷古와 述懷

(1) 松都懷古 - 權韐(?-?) (두산)

雪月前朝色　　눈 속의 달은 전 왕조의 빛이고
寒鐘故國聲　　차가운 종소리도 고국의 소리라네.
南樓愁獨立　　남쪽 누각에 시름겨워 홀로 서니
殘郭暮煙生　　남은 옛 성곽에 저녁연기 피어오르네.

이 작품은 榮枯盛衰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작자는 고려의 수도였던 松都를 방문하여 영화로웠던 고려의 모습을 회고하였다. 달빛과 종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대로인 듯한데, 당시에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옛 터만 남아있다. 홀로 남루에 기대어 서 있으니, 남은 옛 성곽 터에는 저녁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저녁연기는 바로 작가의 쓸쓸한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다. 흐르는 세월 속에 묻히는 역사의 덧없음에 작가의 마음이 착잡해짐을 느낄 수 있는 시이다.

(2) 雪夜獨坐 - 金壽恒(1629-1689) (금성)

破屋凄風入　　무너져 가는 집에 싸늘한 바람 스며들고
空庭白雪堆　　빈 뜰에는 흰 눈만 소복이 쌓이네.
愁心與燈火　　시름겨운 마음은 등잔불과 더불어 타서
此夜共成灰　　오늘 밤 함께 재가 되네.

金壽恒은 '己巳換局'의 사건으로 진도로 유배를 갔다가 죽음을 당하였는데 이 시기에 지어진 작품이다. 기구에서 유배지의 허름한 집에서 싸늘한 바람을 느끼고 있는 작자의 처지를 나타냈다. 승구에서는 인적 없는 빈 뜰에 하염없이 쌓인 눈은 기구에

서 느끼는 작자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더하고 있다. 작가는 근심이 가득하여 등잔의 초가 다 타서 재가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결구에서는 초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근심 쌓인 자신의 모습 또한 재가 될 만큼 처량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3) 行宮 - 元稹(779-831) (금성)

寥落古行宮　　쓸쓸히 퇴락한 옛 행궁
宮花寂寞紅　　모란꽃만 적막히 붉게 피어있네.
白頭宮女在　　흰 머리의 궁녀 아직도 남아있어
閒坐說玄宗　　한가히 앉아 현종 때 얘기하네.

이 시는 唐 玄宗(712-756재위)이 유명한 미인인 양귀비와 더불어 별궁으로 사용했던 行宮의 모습을 통하여 榮枯盛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현종이 양귀비를 찾던 그 시절에는 이 궁궐도 붐볐을 것이고, 모란꽃은 자기를 감상해 주는 주인을 만나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남은 것은 적막함과 쓸쓸함뿐이다. 행궁에 피었던 꽃의 '紅'색과 늙은 궁녀의 센 머리카락이 '白'색인 것이 절묘한 대구를 이뤄 그 옛날의 榮華와 오늘날의 孤寂함이 대조적이다.

회고와 술회에 관한 시들의 작품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首를 다루고 있고 3回에 걸쳐 수록되었다.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懷古와 述懷를 內容으로 한 詩

한시	작가	시대	수록횟수	한시	작가	시대	수록횟수
松都懷古	權韐	朝鮮	1	行宮	元稹	唐	1
雪夜獨坐	金壽恒	朝鮮	1				
3首				3回			

3. 憂國愛民의 詩

憂國愛民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시는 憂國의 情을 다룬 내용과 愛民精神이 나타난 시로 분류하였고 전체 작품 중 13首로 약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우국의 정을 다룬 작품을 살펴보도록 한다.

1) 憂國의 情

우국충정을 주제로 한 시들은 대개 전쟁이나 나라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지고 평화를 기약하는 선인들의 義氣가 스며든 작품들이다. 외세의 침략 속에서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자신의 몸도 아끼지 않고 불사를 수 있는 투혼과 슬기로운 지혜와 용기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선인들의 정신을 본받을 수 있는 작품들이다. 여기에는 또한 不事二君의 정신으로 임금을 향한 깊은 충성심을 느낄 수 있는 작자의 작품도 있다. 부정부패와 비리가 끊임없는 현대 사회에서 그에 一針을 가하고 오로지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는 선인들의 정신을 인식하게 한 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내용의 작품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구체적인 작품을 살펴보도록 한다.

(1) 何如歌 - 李芳遠(1367-1422) (대한)

如此亦如何	이런들 또 어떠하리
如彼亦如何	저런들 또 어떠하리.
城隍堂後垣	성황당의 뒷담이
頹圮亦何如	무너진들 또 어떠하리.
吾輩若此爲	우리도 이와 같이 하여
不死亦何如	죽지 않으면 또 어떠하리.

何如歌는 李芳遠이 조선왕조를 개국하려는 야심을 지녔을 때에 고려의 충신인 鄭夢周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지은 시조를 한역한 것이다. 이방원은 이런들 저런들 한평생 사는 것을 時流에 맞추어 살도록 회유하고 있다. 이 작품은 아래의 丹心歌와 함께 학습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이방원의 하여가에 답한 정몽주의 작품이다.

(2) 丹心歌 - 鄭夢周(1337-1392) (대한)

此身死了死了	이 몸이 죽고 죽어
一百番更死了	일백 번 고쳐 죽어.
白骨爲塵土	백골이 진토 되어
魂魄有也無	넋이라도 있고 없고.
向主一片丹心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寧有改理也歟	어찌 변할 리가 있겠는가?

이방원의 물음에 鄭夢周는 아무리 수없이 죽어서 뼈가 먼지나 흙이 되고 혼백조차 사라지는 한인 있더라도 자신의 충성심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고려의 신하로서 不事二君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방원의 회유에도 끝내 설득 당하지 않고 굳건히 절개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 陣中吟 - 李舜臣(1545-1598) (정진·중앙)

天步西門遠	임금의 행차 서쪽관문으로 멀어지고
東宮北地危	왕자는 북쪽 변경에서 위태롭네.
孤臣憂國日	외로운 신하 나라 일 걱정하는 날
壯士樹勳時	장사들은 공을 세울 때이네.
誓海魚龍動	바다에 맹세하니 어룡이 감동하고

盟山草木知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주네.
讐夷如盡滅　　이 원수들을 다 멸할 수 있다면
雖死不爲辭　　비록 죽을지라도 사양하지 않겠네.

이 시는 임진왜란 당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죽음을 각오하고 구하려는 이순신 장군의 충절심이 나타난 작품이다. 수련에서는 당시의 상황이 극에 달함을 그대로 표현하였다. 임금도 쫓겨 국경으로 피난을 가고 세자 또한 북쪽 국경으로 피하여 곤경에 처해있으니, 함련에서 지금이야 말로 나라를 위하는 때라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경련에서는 정성으로 맹세하니 바다의 어룡과 산천초목까지도 감동하여 이들을 알아본다. 마지막 미련에서 작자는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구하겠다는 비장함이 드러난다. 이로써 충무공의 의지와 결의를 엿볼 수 있다.

(4) 雪夜 - 韓龍雲(1879-1944) (천재)

四山圍獄雪如海　　사방의 산이 감옥을 둘러싸고 눈이 바다와 같은데
衾寒如鐵夢如灰　　이불은 쇳덩이처럼 차갑고 꿈도 재와 같네.
鐵窓猶有鎖不得　　철창으로도 오히려 잠글 수 없으니
夜聞鐵聲何處來　　심야 들리는 종소리는 어느 곳에서 오는가?

이 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韓龍雲이 옥중에 갇혔을 때 지은 시이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옥중에서 눈 내리는 밤에 철창 밖을 바라보며 홀로 고립되어 있는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차가운 이불, 재가 된 꿈은 당시의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적 상황을 느끼게 한다. 철창으로도 오히려 막을 수 없는 것은 종소리이다. 자신은 외딴곳에 홀로 갇혀 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곧 조국의 해방을 막을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5) 白頭山途中 - 申采浩(1880-1936) (대학)

人生四十太支離	인생 사십 년이 너무도 지리하여
貧病相隨暫不移	가난과 병 잠시도 날 떠나지 않네.
最恨水窮山盡處	가장 한스러운 것은 물 다하고 산 다한 곳에
任情歌哭亦難爲	내 뜻대로 노래하고 곡하기 또한 어려운 것이라네.
(又)	
南來北走動經年	남북으로 오가며 세월만 가니
來亦然然去亦然	와도 또한 그러려니 가도 또한 그렇네.
從知萬事須自斷	세상만사 제 뜻대로 결단해야지
俯仰隨人最可憐	굽신거리며 남 따르는 것이 가장 가엾네.

이 시는 신채호가 1910년 이후 중국 망명 시절에 백두산을 유람하고 지은 작품이다. 조국과 민족의 현실이 늘 마음에 걸려 아름다운 산수자연 속에서도 마음이 평온할 수 없었다.[28] 첫 번째 시에서는 그가 병과 가난으로 어렵게 살았던 불우한 처지를 토로하면서, 망국민이 된 현재의 모습을 연결하여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마음껏 노래하지도 울기도 어려운 당대 조선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시에서는 자주적인 정신을 토대로 주체적인 독립운동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나라를 잃은 애통한 심정에서 끓어오르는 작가의 당당한 신념에서 기인한 것이다.

(6) 登金陵鳳凰臺 - 李白(701-762) (정진)

鳳凰臺上鳳凰遊	봉황대 위에 봉황이 놀더니
鳳去臺空江自流	봉황이 떠난 누각은 비고 강물만 절로 흐르네.
吳宮花草埋幽徑	오나라 궁궐의 화초는 그윽한 길을 덮었고
晉代衣冠成古邱	진나라 때의 귀인들은 옛 언덕을 이루었네.

28) 심경호, 『한시기행』, 이가서, 2005, p.439 참조.

三山半落青天外　　삼산은 푸른 하늘 밖으로 반쯤 걸렸고
二水中分白鷺洲　　이수는 백로주를 가운데 두고 갈라졌네.
總爲浮雲能蔽日　　오로지 뜬구름이 해를 가리게 되니
長安不見使人愁　　장안을 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을 시름겹게 하네.

봉황새는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전설적인 새로 왕조의 興盛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송나라가 흥성했던 때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지금은 봉황새는 떠나가고 봉황대를 오갔을 수많은 當代의 귀족들은 사라졌다. 그러나 강은 여전히 유유히 흘러간다. 함련에서 역사적 사실을 회고하고 수련에서의 시상을 확대하고 있다. 오나라 궁궐의 화초는 황폐화 된 길에 묻히고, 진나라의 고관 역시 죽어서 무덤밖에 남지 않았다. 경련에서는 봉황대 앞에 펼쳐진 자연을 三山과 二水로 웅대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모습을 인간의 모습과 대비하고 있다. 미련에서는 세월은 덧없을 뿐인데 간신은 임금의 총명을 가리니 근심이 쌓이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浮雲'은 해를 가리는 간신으로 高力史는 또는 양귀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 시 역시 榮枯盛衰의 정서가 있지만 결국 나라를 걱정하는 작자의 마음이 중심내용을 다루고 있어 '우국의 시'로 분류하였다.

(7) 春望 - 杜甫(712-770) (천재)

國破山河在　　나라는 망했어도 산하는 그대로이고
城春草木深　　성안은 봄이 되니 초목이 무성하네.
感時花濺淚　　시대를 슬퍼하니 꽃에 눈물을 뿌리고
恨別鳥驚心　　이별을 한스러워하니 새소리에도 마음을 놀라네.
烽火連三月　　봉화가 석 달 동안 연속되니
家書抵萬金　　집안 편지는 만금에 해당되네.
白頭搔更短　　흰머리 빗으니 더욱 짧아져
渾欲不勝簪　　전혀 비녀를 감당하지 못하네.

杜甫는 안록산의 난리 중에 반군에게 잡혀 갇혀 있는 상황에 이 시를 지었다. 수련부터 살펴보면, 전쟁이 끝난 후 폐허가 된 국토에 인물은 간데없고 초목만 우거져 있다. 無常한 人間事와 旺盛한 자연의 상반된 모습을 대비하여 슬픔의 표현이 극대화되었다. 함련에서는 즐거움을 주던 꽃과 새 소리가 도리어 눈물과 애달픔을 유발한다고 하니, 전쟁으로 인하여 국토와 백성이 고통 받는 시대를 슬퍼하고, 가족과 이별하는 슬픔을 사람보다 미천한 꽃과 새도 알아보았다는 것이다. 경련에서는 전쟁이 오랜 시간동안 계속 되자 왕래하며 소식 전하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진다. 미련에서 비녀를 꽂을 수 없을 만큼 빠져버린 흰 머리카락은 결국 두보 자신이 몸도 마음도 극도로 衰落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전란 당시의 사회 현실이 절망적이지만 詩題를 '春望'이라고 하여 다음 봄에는 나라가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느낄 수 있다.

이상으로 우국의 정에 관련된 시의 작품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작품 중 6首로 7回에 걸쳐 수록되고 있다.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憂國을 內容으로 한 詩

한시	작가	시대	수록 횟수	한시	작가	시대	수록 횟수
丹心歌	鄭夢周	高麗	1	白頭山途中	申采浩	舊韓末	1
何如歌	李芳遠	朝鮮	1	登金陵鳳凰臺	李白	唐	1
陣中吟	李舜臣	朝鮮	2	春望	杜甫	唐	1
雪夜	韓龍雲	舊韓末	1				
7首				8回			

2) 愛民의 詩

(1) 代農夫吟 - 李奎報(1168-1241) (두산)

帶雨鋤禾伏畝中	비 맞으며 밭이랑 가운데 엎드려 김을 매니
形容醜黑豈人容	모습이 추하고 검어 어찌 사람의 모습이겠는가?
王孫公子休輕侮	왕손 공자여 업신여기지 말라
富貴豪奢出自儂	부귀호사가 모두 나로부터 나온다네.

이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구와 승구에서 고된 농사일을 하는 농부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며 그을린 농부의 모습은 외형상 추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왕손공자들에게 멸시받는 것이 일상이라 이에 대한 반론으로 농부의 목소리로 시상을 전환했다. 田野에 파묻혀 형편없는 몰골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의 존재는 왕손 공자들의 부귀 호사를 뒷받침해주는 계층인데도 곡식이 익기도 전부터 관리들의 조세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국부의 원천인 농부를 이렇게 괴롭혀서는 안 된다며 농부들을 동정하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뜻을 나타내었다. 이규보가 생존했던 기간은, 무신이 집권하면서 토지제도는 더욱 문란해져서 농민에 대한 혹심한 수탈이 자행되었으며, 몽고의 침임을 받아 강화로 천도하면서 국토는 황폐해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이규보가 농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시이다.

(2) 流民歎 - 魚無迹(?-?) (천재)

蒼生難蒼生難	백성의 어려움이여 백성의 어려움이여
年貧爾無食	흉년들어 너희들 먹을 것이 없네.
我有濟爾心	나야 너희를 구제할 마음이 있지만

而無濟爾力	너희를 구제할 힘이 없네.
蒼生苦蒼生苦	백성의 고통이여 백성의 고통이여
天寒爾無衾	날씨가 추워도 너희들 이불이 없네.
彼有濟爾力	저들은 너희를 구제할 힘이 있지만
而無濟爾心	너희를 구제할 마음이 없네.
願回小人腹	원컨대 소인의 마음을 돌려서
暫爲君子慮	잠시라도 군자의 생각을 해 보라.
暫借君子耳	잠시라도 군자의 귀를 빌려서
試聽小民語	소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朝鮮朝 燕山君의 폭정으로 인한 유랑민의 고통과 가난한 백성들의 처절한 삶의 비참함을 사실적으로 描寫하였다. 흉년이 들어도 먹을 것이 없으며, 날이 추워도 덮을 이불조차 없이 어쩔 수 없이 遊離乞食하는 백성을 구제하지 않으려 하는 임금과 위정자들의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苛政猛於虎'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작자야 말로 그들을 구제하고 싶지만 그 역시도 구제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데, 정작 힘 있는 위정자들은 구제할 마음조차 없으니 이들을 소인이라 칭하여 비판한다.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잠시라도 진정한 군자의 마음으로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들어보게 하는 것이 이 시를 지은 詩人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인 것이다. 이 역시 작가의 애민정신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3) 農家歎 - 鄭來僑(1681-1757) (교학)

白骨之徵何慘毒	백골에 세금을 징수하니 어찌 그리 참혹하고 독한가
同隣一族橫罹厄	같은 이웃 한 가족이 횡액을 만나네.
鞭撻朝暮嚴科督	채찍질을 아침저녁으로 하며 엄하게 세를 독촉하니
前村走匿後村哭	앞마을에선 달아나 숨고 뒷마을에선 통곡하네.
鷄狗賣盡償不足	닭과 개를 다 팔아도 갚기엔 부족한데

悍吏索錢錢何得　　사나운 아전들은 돈만 찾으니 돈을 어디서 얻는단 말인가?
父子兄弟不相保　　부자형제가 서로 보전하지 못하고
皮骨半死就凍獄　　피골이 거의 죽게 된 채 얼어붙은 감옥으로 나아가네.

이 시는 농민의 참담한 노동과 착취로 파멸하는 농민의 삶 전체를 조망하고 있다. 軍政의 문란은 민중들의 삶을 황폐화시켜, 상당수의 농민들이 유민으로 전락하였다. 백골징포로 인한 농민의 고통과 부모 형제도 서로 어쩔 수가 없어 피골이 상접한 채 반쯤 죽은 목숨이 되어 온 가족이 얼어붙은 감옥으로 끌려가는 처참한 모습은 군정의 문란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29] 농민의 현실을 온전히 형상화 하고 있는 작품이다.

(4) 潛女歌 - 申光洙(1712-1775) (대학)

(前略)
世間極險無如水　　세상에 극히 험한 것이 물과 같음이 없는데
能者深入近百尺　　능한 자는 깊이 들어감이 백 자에 가까워
往往又遭飢蛟食　　때때로 굶주린 상어의 밥이 되네.
自從均役罷日供　　균역법 나온 뒤부터 날마다 바치는 조공은 없는데
官吏雖云與錢覓　　관리들은 비록 돈을 주고 구한다지만
八道進奉走京師　　팔도 진상물을 서울로 바쳐야 하네.
(中略)
潛女潛女爾雖樂吾自哀　잠녀여 잠녀여 너희는 비록 즐겁다 하나 나는 슬프네.
奈何戲人性命累吾口腹　어찌 사람의 목숨을 희롱하여 내 구복만을 채우겠는가?
(尾略)

이 시는 제주도 潛女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 조선후기의 민중의 고된 삶을 느낄

29)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7, p.264 참조.

수 있는 작품이다. 여기서는 특히,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貢納의 폐단이 민중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잠녀들이 進上品을 위해 그 험한 바다에 목숨까지 걸고 뛰어들어야 하는 가혹한 노동 현실을 慨歎하고 好衣好食하는 서울 사대부들의 밥상에서 버려지는 진상품의 음식들을 대비시키면서 불평등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모순에 대한 작자의 날카로운 비판 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5) 憫農 - 李紳(772-846) (천재)

春種一粒粟　　봄에 한 톨의 곡식을 심어
秋收萬顆子　　가을이면 만 알의 곡식을 거둬들이네.
四海無閑田　　사해에는 묵힌 전답 없는데
農夫猶餓死　　농부들은 오히려 굶어 죽고 있네.

이 시 역시 위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농부들의 勞苦속에서 貪官汚吏의 횡포가 느껴지는 시이다. 봄에 심은 곡식을 수확하면 바로 세금으로 거둬들인다.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오히려 자신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게 되는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6) 蠶婦 - 張籍(?-?) (두산)

昨日入城市　　어제 성 안 저자에 들어갔다가
歸來淚滿巾　　돌아와서는 눈물이 수건에 가득하네.
遍身羅綺者　　온 몸에 비단옷을 두른 사람이
不是養蠶人　　누에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네.

이 작품 역시 민중의 삶의 모습을 그린 주제 의식이 뚜렷한 작품이다. 작가가 시내

에 들렀다 본 광경을 그렸다. 잠부들은 누에를 치고 비단을 짜는 고된 일을 일삼는다. 잠부도 또한 여성이거니 고급의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는가마는 삶이 넉넉지 못하고 생계수단을 위한 작업이라 정작 자신이 만든 비단옷을 걸쳐보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고달픈 현실을 바라본 작가는 잠부에 대한 연민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민중에 대한 작가의식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민중의 삶을 그려 애민정신이 나타난 작품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6首를 다루고 있고 6回에 걸쳐 수록되고 있다.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愛民을 內容으로 한 詩

한시	작가	시대	수록횟수	한시	작가	시대	수록횟수
代農夫吟	李奎報	高麗	1	潛女歌	申光洙	朝鮮	1
流民歎	魚無迹	朝鮮	1	憫農	李紳	唐	1
農家歎	鄭來僑	朝鮮	1	蠶婦	張俞	宋	1
6首				6回			

4. 遊戱의 詩

遊戱의 시는 한시감상의 정서적인 측면보다 作詩 자체가 유희의 수단이었던 모습을 알 수 있게 하는 작품들로 이루어졌다. 교과서 수록 한시작품 전체에서 약 8%의 비중을 차지하여 소수의 작품만을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작품을 살펴보도록 한다.

(1) 祖孫問答[30] - 蔡壽·蔡無逸(蔡壽1449-1515) (금성·대학·대한·지학·천재)

犬走梅花落	개가 달리니 매화꽃이 떨어지고
鷄行竹葉成	닭이 지나가니 대나무 잎이 생겨나네.
孫子夜夜讀書不	손자는 밤마다 독서를 하지 않고
祖父朝朝飮酒猛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음주가 심하시네.

이 시는 蔡壽와 그의 손자인 蔡無逸이 주고받은 聯句이다. 할아버지는 눈 위의 개 발자국을 매화꽃이라 비유하고 손자는 닭 발자국을 대나무 잎이라고 표현했다. 또 할아버지는 손자가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질책하자 손자는 할아버지가 음주가 심하다며 대구를 맞춘다. 어린 손자와 할아버지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정겨움과 無逸의 재치가 엿보이는 작품이다.

(2) 犬吠 - 李慶全(1567-1644) (대한)

一犬吠	첫 번째 개가 짖자
二犬吠	두 번째 개가 따라 짖더니

30) '지학'에서는 출전을 『海東名臣錄』이라 밝혔으나, 원전과는 다르게 '飮'을 '藥'으로 오기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三犬亦隨吠　　세 번째 개 또한 따라서 짖네.
人乎虎乎風聲乎　　사람인가 호랑이인가 바람소리인가
童言山月正如燭　　아이는 산 위의 달은 촛불처럼 밝고
半庭唯有鳴寒梧　　마당 한편에 단지 쓸쓸한 오동나무 소리뿐이라 말하네.

이 작품은 1·2·3句의 순차적이고 반복적인 표현이 흥미로운 작품이다. 가을 밤 산골 마을의 고즈넉한 광경을 배경으로 산골 외딴 집에 개들이 짖는데 한 마리가 짖자 다른 개들도 따라서 짖는다. 하지만 사람이 와서인지, 호랑이가 와서인지, 바람 소리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아이가 밖으로 나가서 본 풍경은 밝은 달이 떠 있고, 마당 한편에는 바스락거리며 떨어지는 오동잎 소리뿐이다. 시골집의 한적한 풍경이 그려지는 작품이다.

(3) 二十樹下(스무나무아래에서) - 金炳淵(1807-1863) (교학·대학·정진·중앙)

二十樹下三十客　　스무나무 아래의 서러운 나그네에게
四十村中五十食　　망할 놈의 동네에서 쉰밥을 주네.
人間豈有七十事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不如歸家三十食　　집으로 돌아가 선 밥 먹느니만 못하네.

이 시는 金炳淵의 시로 그가 쓴 시들은 대개 한시의 정형성을 파괴시키기도 했지만, 그 표현기교나 내용도 파격적이다.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정한 직업도 없이 떠도는 김삿갓에게 어느 집에서 쉰 밥 한 덩이를 준 것에 대해 조롱한 것이다. '二十'은 '스무'로, '三十'은 '설은'으로, '四十'은 '망할', '五十'은 '쉰', '七十'은 '이런'으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말을 한자어로 가탁한 표현이 희화적인 작품이다.

(4) 十七字詩 - 작자미상 (대학)

太守親祈雨	태수가 친히 기우제를 지내니
精誠貫人骨	정성이 뼈에 사무치네.
夜半推窓看	한밤중에 창문을 열어 보니
明月	밝은 달만 떠 있네.
作詩十七字	시 열일곱 자를 지었더니
受笞二十八	곤장 스물여덟 대를 맞았네.
若作萬言疏	만약 만언소를 지었다면
必殺	반드시 죽었겠네.
斜日楓岸路	석양녘 단풍나무 언덕길에
舅氏送我情	외삼촌이 나를 전송해주는 정이여.
相垂離別淚	서로 이별의 눈물을 흘리는데
三行	세 줄기뿐이네.

작자 미상인 詩로 각 시의 결구를 두 字로 끝내 격식에는 맞지 않는 시이다. 그 두 자가 반전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희화한 것이다. 첫 번째 시는 貪官 太守가 친히 기우제를 지내지만, 그 정성과는 다르게 오히려 밝은 달만 떠 있는 하늘을 보고 태수를 비아냥거린 시이다. 두 번째 시는 태수가 앞에서 자신을 비아냥거린 시를 듣고 작자에게 곤장을 가하였다. 그러나 작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한 수를 지은 것이다. 세 번째 시는 이로 인해 작자가 귀향을 가는 길에 지었다. 외삼촌과 이별하며 서로 눈물을 흘리는데 애꾸눈인 외삼촌으로 인해 작자의 눈물 줄기와 합쳐 세 줄기 눈물이 흐름을 표현했다. 서글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치 있게 표현한 작품이다.

유희의 내용과 연관된 작품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首를 다루고 있고 11回에 걸쳐 수록되고 있다.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遊戱를 內容으로 한 詩

한시	작가	시대	수록 횟수	한시	작가	시대	수록 횟수
祖孫問答	蔡壽·蔡無逸	朝鮮	5	二十樹下	金炳淵	朝鮮	4
犬吠	李慶全	朝鮮	1	十七字詩	미상	朝鮮	1
4首				11回			

Ⅳ. 漢詩 收錄의 改善 方向

앞서 연구한 바와 같이 교과서에 수록된 한시들은 대체로 自然景物의 鑑賞에 관한 詩가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시 작품에서 전반적인 특징으로 옛 선인들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시의 미학적인 측면을 고려한 학습목표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시는 자연경물에 대한 감상 외에도 작자가 표출하고자 하는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이로 보면 현행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한시 작품이 나타내고 있는 주제 및 내용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임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人生無常의 내용을 다룬 한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수록되었던 몇몇 작품들이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배제된 것은 학습자의 연령과 정신의 성숙단계를 고려했을 때 다소 적합하지 못하다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듯하다. 하지만 <行宮>, <松都懷古>와 같은 작품은 여전히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작품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대신 수업시간에 이러한 작품을 다루면서 교사의 충분한 배경설명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인생관을 확립하는데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가령, 역사의식 측면에서 작품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가할 것이다.

현행 10種 교과서 전체적으로 59首의 작품을 싣고 있다는 것은 作品數만 봤을 때 적은 편은 아니다. 이는 그만큼 다양한 작품을 수록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는 결과이다. 하지만 교과서별로 작품수를 본다면 많은 것도 아니다. 구체적인 작품 수록 현황을 보면 '중앙'에서는 본문에서 5首, 본문 외에 4首로 총 9首, '대학'에서는 본문에서 7首, 본문 외에 4首로 총 11首, '교학'에서는 본문에서 3首, 본문 외에 6首로 총 9首, '대한'에서는 본문에서만 9首, '지학'에서는 본문에서 6首, 본문 외에 8首로 총 14首, '정진'에서는 본문에서 6首, 본문 외에 3首, '두산'에서는 본문에서만 9首, 천재에서는 본문에서 10首, 본문 외에 2首로 총 12首, '금성'에서는 본문에서 7首, 본문 외에 5首

로 총 12首, '새한'에서는 본문에서만 5首를 다루고 있다.[31] '지학'에서 총 14首로 가장 많은 작품을 다루었고, 다음으로는 '금성·천재'에서 각각 12首, '대학'에서 11首를 다루었다. 다만 '새한'에서는 5首로 가장 적게 수록하고 있었다. 또한 본문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다룬 교과서는 '천재'가 10首, '대한·두산'에서 9首로 그 다음을 이었고, '교학'에서는 3首만을 다루고 본문 외에 6首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수록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끝나기까지 정해진 교과서 한 권을 통해 평균 10작품을 접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던 작품의 내용면에서와 양적인 면에서 그 數를 확대 수록하여 학습자에게 다양한 작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에서 학습자의 정서순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작품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한시 작품의 수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의 요지가 되는 작품으로는 勸學을 다루고 있는 詩, 浩然之氣의 사상을 기를 수 있는 詩, 憂國衷情의 詩, 興味誘發을 위한 詩, 孝道와 友愛 및 信義를 다룬 작품들이다.

(1) 勸學詩 - 陶淵明(365-427)

盛年不重來	성년은 거듭 오지 않고
一日難再晨	하루에 새벽도 두 번 없다네.
及時當勉勵	때에 미쳐서는 마땅히 힘써야 할지니
歲月不待人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네.

학생들에게 학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운율이 있는 시 작품을 통해서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는 딱딱하지 않고 감흥을 줄 수 있는데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는 진리를 새기고 인생에 있어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시기도 정해져 있으므로 놓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시구는

31) 구체적인 작품 수록 현황은 부록을 참고한다.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사용하여 익숙한 표현으로 이 교과서에서 접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을법하다. 그러한 이유로 내용감상에 있어서는 어렵거나 생소함이 없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이다. 다음의 시를 살펴보도록 한다.

(2) 勸學詩 - 朱熹(1130-1200)

少年易老學難成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一寸光陰不可輕　　한 순간의 시간도 가벼이 여기지 말지어다.
未覺池塘春草夢　　연못가 봄풀이 꿈에서 깨지도 아니했는데
階前梧葉已秋聲　　섬돌 앞 오동잎은 이미 가을의 소리를 내는구나.

이 작품 역시 勸學詩로 人口에 膾炙되는 시이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한 순간이라도 시간을 아껴 학문에 힘써야 함을 노래하고 있다. 봄이 옴을 알리는 자연현상을 미처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시간이 흘러 가을을 알리는 오동잎 소리가 들린다. 시간흐름의 빠름을 자연만물의 이치에 빗대어 나타내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곧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야 하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학문에 힘써야 함을 일깨워 주는 교훈이 담긴 시이다. 이러한 勸學의 詩作品의 수록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浩然之氣를 기를 수 있는 시이다.

(3) 遺于仲文[32] - 乙支文德(?-?)

神策究天文　　신묘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32) 閔丙秀, 『韓國漢詩代表作評說』, 太學社, 2006, p.42. "이 작품은 『三國史記』에는 시만 전하고 있을 뿐 題名이 붙여져 있지 않아 후세에 流傳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졌다. <與隋將于仲文>, <與于仲文>, <遺隋將于仲文> 등이 그것이다."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실렸던 작품이다.

妙算窮地理　　기묘한 책략은 땅의 이치를 다하였네.
戰勝功旣高　　전쟁에서 승리한 공이 이미 높으니
知足願云止　　만족할 줄 알고 원컨대 그치기를 이르노라.

이 시는 고구려의 장수였던 을지문덕의 시이다. 현재까지 전하는 고구려의 詩篇은 이 을지문덕의 <遺于仲文>과 定法師의 <詠孤石> 등을 들 수 있을 뿐인데 모두 고구려인의 氣象이 빼어나게 드러난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隋나라 煬帝가 宇文述과 于仲文로 하여금 고구를 침략하도록 하였는데, 을지문덕이 군사들을 유인해서 薩水까지 후퇴한 후에 이를 격파하였다. 이 시는 그 驕兵策의 일환으로 隋將 于仲文에게 준 것이다.[33] 이 작품에 대한 평을 했던 柳得恭은 "乙支文德은 참으로 才士이며, 그의 五言詩는 大東의 으뜸이다."[34]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작품이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실렸으나 7차 교육과정으로 개정된 후의 교과서에서는 수록되지 않고 있다. 이 시는 학습자에게 있어서 장수의 기개를 느끼도록 함으로써 젊은이의 야망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선인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에 의의를 두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4) 浮碧樓 - 李穡(1328-1396)

昨過永明寺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暫登浮碧樓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城空月一片　　성은 텅 빈 채로 달 한 조각 떠 있고
石老雲千秋　　오래된 조천석에는 천 년의 구름 있네.
麟馬去不返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데
天孫何處遊　　천손은 어느 곳에서 노니는가?
長嘯倚風磴　　길게 휘파람불며 바람 부는 돌다리에 의지하는데

33) _____, 『韓國漢詩史』, 太學社, 1997, p.62 참조.
34) 柳得恭, 『泠齋集』, 「二十一都懷古詩」, '乙支文德眞才士 倡五言詩冠大東'.

山靑江自流　　산은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이 작품은 李穡이 고구려의 유적지인 평양성을 지나면서 읊은 것이다.『松溪漫錄』과『芝峯類說』에서는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부벽루에 걸려 있던 다른 시들은 모두 철거하고 단지 정지상의 <大同江>과 이 작품만을 남겨 두었다고 할 정도로 대표적인 시이다.[35] 부벽루에 올라서 보이는 터만 남은 옛 성과 오래된 돌은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기린마를 타고 간 東明王은 돌아오지 않지만 미련에서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을 노래함으로써, 인간 역사의 유한함을 자연의 영원함과 대비시키고 있다. 이 작품 또한 豪放한 기운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5) 絶命詩 - 黃玄 (1855-1910)

鳥獸哀鳴海岳嚬　　조수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는데
槿花世界已沈淪　　무궁화 세계 이미 침륜하였네.
秋燈掩卷懷千古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천고를 생각하니
難作人間識字人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네.

앞의 Ⅲ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국충정에 관한 시는 총 7首를 수록하고 있는데 외세의 수많은 침략과 전쟁으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선조들의 충정에 비하면 수록 횟수가 다소 소략하다 여겨진다. 따라서 憂國衷情을 돋보인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는 黃玄의 <絶命詩>를 제시한다. 황현은 庚戌國恥를 맞게 되자 망국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선비의 마지막 본분임을 자각하고 <絶命詩>4수를 남겼다. 위의 시는 그 중 셋째 수로 작자의 의기가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작자는 나라가 일본에 의하여 패망한 것을 조수와 산하가 울부짖고 찡그리는 것으로 표현하여 그 비극을 극대화했다.[36]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선비로서 할 수 있는 것은

35) 閔丙秀,『韓國漢詩講解』, 太學社, 1995, p.137 참조.

죽음뿐이라 생각했고, 결국은 죽음을 택하였다. 이러한 작자의 모습을 통해 조국에 대한 충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6) 胡地無花草 - 作者未詳

胡地無花草　오랑캐 땅이라 화초가 없다 하나
胡地無花草　오랑캐 땅엔들 화초가 없을까?
胡地無花草　어찌 땅에 화초가 없으랴만
胡地無花草　오랑캐 땅이라 화초가 없네.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전체적으로 遊戱的인 작품을 4首 싣고 있다. 한시는 개인의 敍情을 노래하는 수단이기도 했지만 유희의 수단이 되기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한시학습에 흥미를 유발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에 대해 더 살펴보기로 한다. 이 시는 조선시대 향시에서 장원을 한 시이다. 각 句마다 한자를 동일하게 사용했으나 그 의미는 다르게 풀이할 수 있다. 향시에서 내걸었던 <胡地無花草>라는 과제를 그대로 4句를 만들어 시를 지은 것이다. 다른 응시한 자들은 모두 왕소군의 고사를 들어 장광설을 늘어놓았지만 막상 이 작품이 장원에 뽑히게 된 것이다.[37]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동일한 어구라도 작가가 처한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작품은 그러한 특성을 학습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을 소개할 경우에는 왕소군의 고사를 함께 수록해야 한다. 또한 한시 중에는 破字하여 장난을 친 문자 유희가 심심찮게 있다. 글자를 쪼갰다 하여 坼字詩라고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시는 漢字도 어렵지 않을 뿐더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36) _____, 『韓國漢詩史』, 太學社, 1997, p.473 참조.
37) 정민, 『한시미학산책』, 솔출판사, 1996, p.112 참조.

(7) 破字詩 - 金炳淵(1807-1863)

仙是山人佛弗人	신선은 산인이지만 부처는 사람이 아니고
鴻惟江鳥鷄奚鳥	기러기는 강 새이지만 닭이 어찌 새이겠는가?
氷消一點還爲水	얼음이 한 점 녹으면 도로 물이 되고
兩木相對便成林	두 나무 마주하니 문득 숲을 이루네.

이 시는 현상 그대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읊었다. 하지만 漢字 자체를 유심히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仙'은 '人'과 '山'이 결합된 것이다. 이를 파자하면 '山人'이 되고, '佛'은 '弗人', '鴻'은 '江鳥', '鷄'는 '奚'와 '鳥'를 묶은 것이 된다. 3구에서는 '氷'자에서 점 하나가 녹아버리면 '水'가 되고, '木'이 두개 나란히 마주보면 '林'이 된다. 文字遊戱와 詩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시의 형식을 지닌 이러한 戱作들은 그 속에서 뜻밖에 드러나는 언어의 발랄한 생기를 넣어 주고 흥미를 유발한다. 따라서 이 같은 희작은 교과서 본문 외에 소개하는 이야기 코너에 수록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8) 七步詩 - 曹植(192-232)

煮豆燃豆箕	콩을 삶는데 콩대를 때니
豆在釜中泣	콩은 솥 가운데서 우네.
本是同根生	본래 한 뿌리에서 태어났거늘
上煎何太急	들볶는 것이 어찌 그리 심한가?

이 시는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작품이다. 魏文帝인 曹丕가 그의 아우인 曹植의 똑똑함을 시기하여 일곱 걸음 만에 시를 완성하게 했다. 만약 완성하지 못하면 國法으로 다스리겠다고 한 데서 짓게 된 시이다. 이들은 曹操의 자식으로 曹植의 재주가 워낙

뛰어나서 조조의 총애를 받았지만 형님인 曹丕의 질시와 견제도 심하게 받았다. 이 때문에 아우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시를 짓게 한 것이다. 콩대는 주로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콩을 삶을 때도 콩대를 태워 불을 때니 솥에서 끓고 있는 콩이 원래 한 뿌리였던 콩대가 자신을 삶아대는 것이 야속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조비는 이시를 보고 부끄러워하며 동생을 놓아 주었다. 교과서 수록 작품 중에는 형제간의 우애에 관한 작품은 한 편도 수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이 작품의 유래를 통해 형제간의 우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될 것이다. 다음은 孝에 관한 시를 살펴본다.

(9) 遊子吟 - 孟郊(751-814)

慈母手中綿	자애로운 어머니 손 안의 바느질한 실올은
遊子身上衣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몸에 걸칠 옷이네.
臨行密密縫	떠나갈 때에 임하여 촘촘히 꿰매신 것은
意恐遲遲歸	마음속에 더디 돌아올까 염려해서이네.
難將寸草心	한 치 되는 풀의 마음 가져다가
報得三春暉	봄날의 따뜻한 햇볕 보답하기 어렵네.

이 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孟郊는 5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溧陽縣尉라는 낮은 벼슬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시는 율양에서 어머니를 맞이하면서 지은 것이다. 소박하면서도 위대한 모성애가 잘 묘사되어 읽는 이들로 하여금 孝心을 자아내게 한다.[38]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38) 成百曉,『譯註 古文眞寶 前集』, 傳統文化硏究會, 2005, p.56 참조.

(10) 貧交行 - 杜甫(712-770)

翻手作雲覆手雨	손 뒤집으면 구름 일게 하고 손 엎으면 비 오게 하니
紛紛輕薄何須數	많은 경박한 자들을 어찌 굳이 헤아리겠는가?
君不見官鮑貧時交	그대는 보지 못 했는가 관중과 포숙의 가난할 때의 사귐을
此道今人棄如土	이 도리를 지금 사람들은 흙 버리듯 하고 있네.

이 시는 樂府體의 일종인 '行體'이다. 杜甫가 長安에서 빈한한 생활을 하면서 仕官을 구하던 시절의 작품이다. 관중과 포숙의 사귐을 비유하여 단순히 우정을 중요시한 작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작가의 당시 생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작품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信義의 중요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두보는 자신의 熱望에도 불구하고, 朝廷 사람들의 냉담함에 쉽사리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냉담한 세상에 노여움과 절망을 느낀 그가 이 시로써 그의 감정을 표출하였다. 인간 소외와 불신이 극에 달한 오늘날에 더욱 절실한 가르침이 될 수 있는 작품이다.

이상으로 한시 작품의 수록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10종 교과서에 수록된 한시 작품은 평균 10수 정도로 현재 고등학교에서 漢詩작품을 접하는 기회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더 많은 작품을 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교과서에 있는 작품도 다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시 학습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본 장에서는 한시 작품의 수록 방향을 勸學을 다루고 있는 詩, 浩然之氣의 사상을 기를 수 있는 詩, 憂國衷情의 詩, 興味誘發을 위한 詩, 孝道와 友愛 및 信義를 다룬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논의하였다.

방대한 작품 속에서 選詩를 한다는 것은 작품을 보는 여간한 눈썰미와 識見을 가지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바람직한 인성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일조하는 작품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교육 현장에 임했을 때에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염두하고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교과서 구성에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Ⅴ. 結論

본고에서는 第7次 敎育課程에 따른 高等學校 漢文敎科書에 수록된 한시 작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선인들의 삶과 지혜,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간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우리 생활 전반에 면면히 이어 온 전통문화를 바르게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39] 漢文科의 성격에 따라 漢文敎育에 있어서 漢詩學習은 다른 어떤 영역에 비해 소홀히 할 수 없는 필수적인 장르이다. 따라서 현행 10鍾 교과서는 어떤 작품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작품 수록 방향에 대하여 연구했다.

우선 작품 분석에 있어서 첫째, Ⅱ장의 韓國과 中國 작품의 作家別 分析이다. 한국시의 경우, 37명의 작가의 작품을 43首에 걸쳐 수록하였고, 중국시의 경우, 15명 작가의 작품을 23首에 걸쳐 수록하고 있었다. 각 나라의 시기별로는 한국은 조선시대의 작품이, 중국은 당나라 시대의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으로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이 두 시기가 한시미학적인 측면에서 詩作活動이 활발했던 배경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조선시대와 당의 詩作만이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작가별 작품 선별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Ⅲ장의 작품 內容別 分析이다. 여기서는 전체 66首 중에 시의 일부만을 수록한 작품을 제외한 59首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옛 선인들의 한시 작품에는 자연을 소재로 한 시가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敎科書의 10種에 수록된 총 59首 중에서 자연을 소재로 한 詩는 21편으로 약 3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한시가 自然抒情과 인간의 보편적인 情緖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학 장르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合一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자연의 이해에 대한 접근을 통해

39)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p.13.

서 바람직한 인간성을 배양할 수 있는 價値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장르임을 보여주고 있다. 情恨과 懷古를 노래한 작품으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시, 離別의 情恨에 대한 詩, 懷古와 述懷에 대한 시로 세분하였다. 전체 59首 중에서 19首로 약 2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인간의 내면에 지니고 있는 정서를 예술적으로 표출했던 한시의 한 면모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지는 작품도 존재하는데 꿈과 희망이 있는 학습자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학습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작품은 교과서에서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憂國愛民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시는 憂國의 忠情과 愛民精神이 나타난 시로 분류하였는데 전체 작품 중 13首로 약 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遊戱의 시는 한시감상의 정서적인 측면보다 作詩자체가 유희의 수단이었던 모습을 알 수 있게 하는 작품들로 이루어졌다. 교과서 수록 한시작품 전체에서 약 5%의 비중을 차지하여 극히 소수의 작품만을 수록하고 있었다.

현행 10種 교과서 전체적으로 59首의 작품을 싣고 있다는 것은 作品의 數만을 봤을 때 적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교과서별로 작품수를 본다면 많은 것도 아니다. 구체적인 작품 수록 현황을 보면 '지학'에서 총 14首로 가장 많은 작품을 다루었고, 다음으로는 '금성·천재'에서 각각 12首, '대학'에서 11首를 다루었다. 다만 '새한'에서는 5首로 가장 적게 수록하고 있었다. 또한 본문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다룬 교과서는 '천재'가 10首, '대한·두산'에서 9首로 그 다음을 이었고, '교학'에서는 3首만을 다루고 본문 외에 6首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수록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끝나기까지 정해진 교과서 한 권을 통해 평균 10작품을 접한다는 의미가 된다. 앞에서 언급했던 작품의 내용면과 양적인 면에서 그 數를 확대하여 수록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Ⅳ장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한문과의 교육과정 성격을 고려하여 漢詩 作品의 收錄 改善 方向을 구체적인 작품을 들어 제시하였다. 논의의 요지가 되는 작품으로는 다음과 같다. 勸學을 다루고 있는 詩로 陶淵明과 朱熹의 <勸學詩>를 통해 학

문의 중요성을 일깨우도록 하였다. 高句麗 將帥인 乙支文德의 <遺于仲文>시와 李穡의 <浮碧樓>를 통해 浩然之氣의 정신을 기를 수 있는 작품을 제시하였다. 또한 憂國衷情을 논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는 黃玄의 <絶命詩>와 興味誘發을 위한 작품으로 <胡地無花草>와 金炳淵의 작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형제간의 우애의 중요성을 노래한 曹植의 <七步詩>와 부모님에 대한 효의 의미를 일깨우는 孟郊의 <遊子吟>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杜甫의 <貧交行>을 통해 인간관계에 있어서 信義의 의미를 일깨울 수 있도록 하였다. 방대한 작품 속에서 選詩를 한다는 것은 작품을 보는 여간한 눈썰미와 識見을 가지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의 바람직한 인성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일조하는 작품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교육 현장에 임했을 때에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염두하고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교과서 구성에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教科書

김경수·김성룡·김봉숙·김평호,『고등학교 한문』, 교학사, 2002.

김상홍·최창구·이강렬·원창희,『고등학교 한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박갑수·이상진·최상근,『고등학교 한문』, 지학사, 2003.

신표섭·이병주·이윤찬·강경모·백광호·허시봉·류기봉·이태희,『고등학교 한문』, 대학서림, 2002.

안재철·원용석·김동규,『고등학교 한문』, 대한교과서, 2003.

유성준·김동환·유형구,『고등학교 한문』, 새한교과서, 2002.

이명학·장호성·현상곤·임완혁,『고등학교 한문』, 두산, 2002.

이수철·곽치영,『고등학교 한문』, 정진출판사, 2003.

이희목·진재교·최돈욱·신영주,『고등학교 한문』, 천재교육, 2002.

최상익·이병혁·허남욱·이영우,『고등학교 한문』, 금성출판사, 2002.

單行本

교육인적자원부,『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한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강명관,『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7.

金相洪,『漢詩의 理論』,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_____,『한국 한시의 향기』, 박이정, 1999.

閔丙秀,『韓國漢詩講解』, 太學社, 1995.

_____,『韓國漢詩史』, 太學社, 1997.

_____,『韓國漢詩代表作評說』, 太學社, 2006.

成百曉,『譯註 古文眞寶 前集』, 傳統文化硏究會, 2005.

송재소,『한시미학과 역사적 진실』, 창작과 비평사, 2001.

심경호,『한국 한시의 의해』, 태학사, 2000.

_____,『한시기행』, 이가서, 2005.

안대회,『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_____,『韓國漢詩의 分析과 視角』,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尹寅鉉,『한국한시 비평론』, 아세아문화사, 2001.

李丙疇,『詩聖 杜甫』, 문헌각, 1982.

_____,『韓國漢文學史』, 반도출판사, 1995.

이병한,『中國 古典 詩學의 理解』, 문학과 지성사, 1993.

이종건,『한시가 있어 이야기가 있고』, 새문사, 2003.

이종묵,『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이종은·정민,『한국명가한시선Ⅰ』, 문헌과 해석사, 1999.

이정선,『조선후기 조선풍 한시 연구』, 한양대출판부, 2002.

이해원,『唐詩의 이해』, 지영사, 2001.

정민,『한시미학산책』, 솔출판사, 1996.

____,『한시속의 새, 그림속의 새』, 효형출판, 2003.

조동일,『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1998.

한예원,『한문교육론』, 문자향, 2006.

論文

權錫求,「高等學校 漢文敎科書 收錄 漢詩의 問題點」,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金相洪,「第7次 敎育課程에 의한 高等學校 漢文 敎科書의 問題點-漢詩 單元을 중심으로」,『漢文敎育硏究』 제2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김연주,「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한시단원과 한시교육의 개선방안」, 고려대 교육대학원, 2004.

박미혜,「한시 교육의 필요성 및 지도방안」,『한자한문교육』 제9권,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2.

박완식·김창용·김상곤·김유태·정인덕,「한문 교과서 내의 한시 분석 연구-제7차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를 중심으로」,『敎育論叢』 제16권, 전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1.

박인희,「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한문 교과서 한시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2004.

朴智賢,「高等學校 漢文 敎科書에 收錄된 漢詩 硏究」,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송영일,「漢詩 敎育의 목적과 효율적 지도 방법 연구」,『한국어문교육』 제13권,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04.

尹寶羅,「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한문교과서 분석 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 2003.

李鍾文,「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소재 한시에 대하여」,『한국학논집』 제19권,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2.

車京曖,「第7次 高等學校 漢文敎科書의 漢詩에 關한 硏究」, 조선대 교육대학원, 2003.

최승락,「제6차·7차 교육과정 한문 교과서 수록 중국 고전시 현황 분석」, 건국대 교육대학원, 2006.

<부 록> 漢詩 收錄 現況

교과서	대단원	소단원	영역	한시	작가
중앙	Ⅴ. 서정의 세계	13. 봄의 서정	*본문 이해의 길라잡이	春夜喜雨의 일부	杜甫
			春雨 <본문>	春興	鄭夢周
			<본문>	春曉	孟浩然
		14. 이별의 아쉬움	*본문 이해의 길라잡이	何人把新筆~	鄭知常
			離別 <본문>	送人	鄭知常
			<본문>	踰大關嶺望親庭	申師任堂
			*읽으며 생각하는 한자어 여행	送元二使安西	王維
		15. 나라를 위한 충정	陣中吟 <본문>	陣中吟	李舜臣
	Ⅹ. 문예인의 초상	31. 방랑시인 김삿갓	*본문 이해의 길라잡이	二十樹下	金炳淵
대학서림	Ⅲ. 漢詩의 세계	7. 자연 속에 묻혀	<본문>	山居	李仁老
			<본문>	月溪途中	劉希慶
			*더 알아보기	訪金居士野居	鄭道傳
		8. 사랑과 이별	<본문>	送人	鄭知常
			<본문>	夢魂	李玉峯
			*더 알아보기	閨情	李玉峯
	Ⅷ. 漢詩의 세계2	20. 한문 유희와 희작시	<본문>	二十樹下	金炳淵
			<본문>	十七字詩	작자미상
			*더 알아보기	祖孫問答	蔡壽·蔡無逸
		21. 고단한 삶의 노래	<본문>	潛女歌	申光洙
			*더 알아보기	白頭山途中	申采浩
교학사	Ⅴ. 우화속에 담긴 생각	十一. 舍人從蛙	*발전학습	二十樹下	金炳淵
	Ⅵ. 시의 향기	十二. 離別	본문 외	秋夜雨中	崔致遠
			<본문>	送人	鄭知常
			*심화학습	送元二使安西	王維
		十三. 山水	<본문>	春興	鄭夢周
			*심화학습	訪金居士野居	鄭道傳
		十四. 人情	<본문>	章臺枝	李匡呂
			*심화학습	農家歎	鄭來僑
			*탐구학습	中秋感事	우웬 피칸
대한	Ⅴ. 한시로 가는 길	16. 재미있는 시구	<본문>	祖孫問答	蔡壽·蔡無逸
			<본문>	犬吠	李慶全
		17. 회유와 충절	<본문>	何如歌	李芳遠
			<본문>	丹心歌	鄭夢周
		18. 산속의	<본문>	山夕詠井中月	李奎報

		한가로움	<본문>	山中答俗人	李白
		19. 그리움의 정서	<본문>	閨情	李玉峯
			<본문>	述懷	朴竹西
		20. 봄비	<본문>	春夜喜雨	杜甫
지학사	Ⅲ.옛사람들의 재치와 슬기		*한문학 이야기	秋夜雨中	崔致遠
	Ⅵ. 시와 인생	18. 계절의 서정	<본문>	絶句	杜甫
			<본문>	途中	權韠
			*한시의 활용	雜詩의 일부	陶淵明
			*한시의 활용	四時의 일부	陶淵明
		19. 삶의 길목에서	<본문>	山中答俗人	李白
			<본문>	別情人	無名氏
			*한시의 활용	山行	杜牧
		20. 화석정에서	<본문>	花石亭	李珥
			*읽고 생각하기	祖孫問答	蔡壽·蔡無逸
		21. 시에 얽힌 이야기	<본문>	시화 중 送人	鄭知常
			*한자어 여행	推敲	賈島
			*실력다지기	何人把新筆~	鄭知常
			*한문학 이야기	踰大關嶺望親庭	申師任堂
정진	Ⅳ. 일화에 담긴 교훈	二. 借鷄騎還	*한자이야기	二十樹下	金炳淵
	Ⅴ. 문학의 향기(1)	一. 계절이 오는 소리	<본문>	春興	鄭夢周
			<본문>	山寺	李達
		二. 이별의 情	<본문>	送人	鄭知常
			<본문>	送元二使安西	王維
		三. 청평사에서	<본문>	有客	金時習
			*한 걸음 더	代悲白頭翁의 일부	劉希夷
				陣中吟의 일부	李舜臣
		四. 우국의 情	<본문>	登金陵鳳凰臺	李白
			*한 걸음 더	送友人의 일부	李白
두산	Ⅴ. 아름다운 서정의 세계	十七. 自然	<본문>	金剛道中	姜柏年
			<본문>	登鶴雀樓	王之渙
		十八. 述懷	<본문>	絶句	杜甫
			<본문>	松都懷古	權韠
		十九. 鄕愁	<본문>	偶吟	洪顯周
			<본문>	九月九日 憶山東兄弟	王維
		二十. 社會	<본문>	蠶婦	張兪
			<본문>	代農夫吟	李奎報
	Ⅵ. 한민족과 국토 산하	二十. 金剛山	<본문>	送僧之楓岳	成石璘
천재	Ⅷ. 한시 미학 산책	21. 산에서 얻은 기상	<본문>	金剛山	成石璘
			<본문>	天王峯	曺植

		22. 이별의 정회	<본문>	送人	鄭知常
			<본문>	送元二使安西	王維
		23. 여성의 정감과 애환	<본문>	閨情	李玉峯
			<본문>	採蓮曲	許楚姬
			*읽고 생각하기	感遇 (번역문)	許楚姬
		24. 민중의 삶과 현실	<본문>	憫農	李紳
			<본문>	流民歎	魚無迹
		25. 자유와 평화의 노래	<본문>	雪夜	韓龍雲
			<본문>	春望	杜甫
			*읽고 생각하기	祖孫問答	蔡壽·蔡無逸
금성	Ⅴ. 시인의 마을에서	十七. 세월은 흐르고	<본문>	春興	鄭夢周
			<본문>	行宮	元稹
			*명시 감상	雪夜獨坐	金壽恒
		十八. 함께 할 수 없는 아픔	<본문>	送人	鄭知常
			<본문>	送孟浩然之廣陵	李白
			*명시 감상	楓橋夜泊	張繼
		十九. 님이시여	<본문>	泣別慈母	申師任堂
			<본문>	自述	李玉峯
			*명시 감상	閨怨	林悌
		二十. 눈이 내리는데	<본문>	新雪	李崇仁
			*명시 감상	終南別業	王維
			*대화방	祖孫問答	蔡壽·蔡無逸
새한	Ⅶ. 漢詩	21. 金剛山 · 尋隱者不遇	<본문>	金剛山	宋時烈
			<본문>	尋隱者不遇	賈島
		22. 秋思·送人	<본문>	秋思	張籍
			<본문>	送人	鄭知常
		23. 花石亭	<본문>	花石亭	李珥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한문교육	학 번	20068029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김 정 채 한문: 金 楨 埰 영문: Kim Jeong-chae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1동 865-13번지				
연락처	011 * 612 * 9366 E-MAIL: shjc2206@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한시 분석 영문 : A study on the Sino-Korean poetry in the Sino-Korean textbook of High school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년 2월 일

저작자: 김 정 채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